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문초록】

현대중국어 ‘V上’ 구조 중 ‘上’의 시간성과 결합동사 연구

현대중국어에서 ‘V上’ 구조의 용법과 보어 ‘上’ 앞에 어떤 동사가 같이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 학습자에게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본고는 말뭉치 자료를 통해 ‘V上’ 구조 중의 동사는 대부분 지속상 표지 ‘著’와 결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著’와 결합하는 동사는 ‘지속성동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본고는 지속성동사 중 보어 ‘上’과 결합할 수 있는 동사, 결합할 수 없는 동사를 연구범위로 하여 ‘上’과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또한 ‘V上’ 구조를 사용할 때 지속상 표지 ‘著’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본고는 ‘上’을 상(aspect)적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上’이 사건에서 시간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분석하였다.

본고는 말뭉치 자료를 통해 ‘著’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를 찾은 다음에, ‘上’과 결합할 수 있는 동사, 결합할 수 없는 동사로 나누어 이 두 가지 동사의 의미특징을 살펴보았다. 본고가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陳明舒가 분류하는 세 가지의 ‘上’은 모두 ‘著’와 결합할 수 있으며 시간 부사와 결합할 수 있다. 이로써 ‘上’이 지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둘째, ‘上’과 결합할 수 없는 ‘방향성 동사’, ‘순간동사’, ‘유표지 상태동사’는 대부분 ‘지속’의 의미를 지닌 ‘著’와 결합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시간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성이 강한 ‘著’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上’과도 결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상적 개념으로 볼 때 ‘上’은 지속상 표지 ‘著’, 기시상 표지 ‘起來’와 비교할 때 한 사건에서 시작, 지속, 종료부분을 관찰한다. ‘上’을 완료상 표지 ‘了’의 동태성 개념으로 적용할 때 동사에 따라 ‘上’의 동태성도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성 동사 중 ‘上’과 결합하는 동사, 결합할 수 없는 동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상적 개념을 통해 ‘上’의 시간성을 알아내며 ‘上’과 결합하는 동사에 따라 ‘上’이 사건에서 진행되는 과정도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주요어 : ‘V上’ 구조, 보어 ‘上’, 상(aspect)적 개념, 지속상 표지 ‘著’, 기시상 표지 ‘起來’, 완료상 표지 ‘了’

학 번 : 2010-22703

〈목 차〉

【국문초록】	i
1. 서론	1
1.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
1.2 선행연구	3
1.3 연구방법	5
2. ‘上’과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	8
2.1 직접공간의 ‘上1’과 결합하는 동사	8
2.1.1 ‘上1-1’과 결합하는 동사	9
2.1.2 ‘上1-2’와 결합하는 동사	11
2.1.3 ‘上1-3’과 결합하는 동사	12
2.1.4 ‘上1-4’와 결합하는 동사	14
2.2 공간은유의 ‘上2’와 결합하는 동사	15
2.2.1 ‘上2-1’과 결합하는 동사	16
2.2.2 ‘上2-2’와 결합하는 동사	20
2.3 시간은유의 ‘上3’과 결합하는 동사	22
2.3.1 ‘上3-1’과 결합하는 동사	23
2.3.2 ‘上3-2’와 결합하는 동사	26
3. ‘上’과 결합할 수 없는 동사의 특징	29
3.1 방향성 동사(方向性動詞)	29
3.1.1 방향성 동사와 ‘起來’의 결합	30
3.1.2 방향성 동사와 ‘過’의 결합	33
3.1.3 방향성 동사와 ‘了’의 결합	34

3.1.4 방향성 동사와 시간사의 결합	35
3.2 순간동사(瞬間動詞)	37
3.2.1 순간동사와 ‘起來’의 결합	37
3.2.2 순간동사와 ‘過’의 결합	40
3.2.3 순간동사와 ‘了’, 시간사의 결합	40
3.3 유표지 상태동사(有標志狀態動詞)	42
3.3.1 유표지 상태동사와 ‘起來’의 결합	43
3.3.2 유표지 상태동사와 ‘過’의 결합	46
3.3.3 유표지 상태동사와 ‘了’, 시간사의 결합	47
4. ‘上’의 시간성과 상(aspect)적 관계	51
4.1 ‘上’과 지속상(持續相)	52
4.1.1 ‘上1’의 지속상	52
4.1.2 ‘上2’의 지속상	56
4.1.3 ‘上3’의 지속상	58
4.2 ‘上’과 기시상(起始相)	59
4.2.1 ‘上1’의 기시상	60
4.2.2 ‘上2’의 기시상	62
4.2.3 ‘上3’의 기시상	63
4.3 ‘上’과 완료상(完整相)	65
4.3.1 ‘上’의 전체과정의 동태	67
4.3.2 ‘上’의 종결점의 동태	69
4.3.3 ‘上’의 시작점의 동태	71
5. 결론	73
【참고문헌】	76
【中文提要】	78

〈제목 차례〉

[표 1] 보어 ‘上1’과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	8
[표 2] 보어 ‘上2’와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	16
[표 3] 보어 ‘上3’과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	22
[표 4] 방향동사와 ‘起來’, ‘過’, ‘了’, 시간사의 결합	36
[표 5] 순간동사와 ‘起來’, ‘過’, ‘了’, 시간사의 결합	42
[표 6] 방향동사, 순간동사, 유표지 상태동사와 ‘起來’, ‘過’, ‘了’, 시간사의 결합	48

〈그림 차례〉

[그림 1] ‘著’가 시간 축에서 나타내는 지속 과정	10
[그림 2] 상(aspect)개념	39
[그림 3] 순간동사가 ‘著’와 결합할 때의 지속 과정	49
[그림 4] 상태동사의 지속 과정	49
[그림 5] 방향성 동사, 순간동사, 상태동사의 시간성 비교	49
[그림 6] 상(aspect)적 개념	51
[그림 7] 시간사를 추가하는 경우에 ‘上1’의 지속상	55
[그림 8] 시간 축에서 ‘著’의 관찰	56
[그림 9] 시간 축에서 ‘上’의 관찰	56
[그림10] ‘起來’의 기시상	59
[그림11] ‘上’의 기시상	61
[그림12] ‘了’의 시작점	66
[그림13] 전체 과정의 동태	68
[그림14] 종결점의 동태	70
[그림15] 시작점의 동태	72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현대 중국어의 ‘V上’ 구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上’의 상적 의미와 시간성이라는 각도에서 동사의 행위가 지속되는 시간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 我終於登上山頂了。
나는 드디어 산 정상에 올랐다.
- (2) 那個模特兒登上廣告了。
그 모델이 광고에 나왔다.

예문(1)의 ‘登上山頂’은 동사 ‘登’의 행위가 이미 끝난 상태이다. 그러나 예문(2)의 ‘登上廣告’는 화자가 발화할 때 동사 ‘登’의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두 예문의 동사는 모두 ‘登’이다. ‘登’은 ‘上’과 결합하여 모두 ‘시작하여 계속됨’을 나타낸다. 그러나 두 예문의 경우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은 동일하지 않다. 즉, 동사의 의미특징에 따라 동사 행위의 지속성이 달라진다.

다음은 보어 ‘上’이 시간사와 결합한 경우이다.

- (3) 跳上三天三夜。
3일 밤낮으로 춤을 추었다.
- (4) 他在北京住上幾個月了。
그는 북경에서 몇 개월 동안 살았다.

2 현대중국어 ‘V上’ 구조 중 ‘上’의 시간성과 결합동사 연구

예문(3-4)에는 모두 시간사 ‘三天三夜’, ‘幾個月’이 나온다. 그러나 예문(3)은 전체적인 과정이 동태(動態)적이다. 동사 ‘跳’는 ‘三天三夜’라는 기간 동안 움직이는 ‘跳’의 동작이 계속된다. 한편, 예문(4)는 시작점은 동태이지만 그 이후는 정태적이다. 동사 ‘住’는 ‘上’과 결합하여 변화의 시작점을 나타내고 ‘幾個月’라는 기간 동안 정태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위의 예문에서 두 가지 사건의 동태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上’은 결합하는 동사에 따라 사건의 동태가 서로 달라진다.

다음은 동사가 보어 ‘上’과 결합할 수 없는 경우이다.

(5) *天塌了也能頂上。

(5') 天塌了也能頂起來。

하늘이 무너져도 지탱할 수 있다.

(6) *把東西舉上。

(6') 把東西舉起來。

물건을 들어라.

예문(5-6)의 ‘頂’과 ‘舉’는 모두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성을 가지는 동사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V上’ 구조의 ‘上’을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보어(趨向補語)로 본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동사 ‘頂’과 ‘舉’는 ‘上’과 결합하면 비문이 되고, ‘起來’와 결합하면 성립된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이처럼 방향성을 가지지만 ‘上’과 결합할 수 없는 동사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설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起來’는 선행연구에서 방향성을 갖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시간 의미를 갖는 방향보어를 상(aspect)표지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향보어 ‘上’은 공간에서 이동하는 의미에 대해서만 연구가 있었고, ‘上’의 시간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上’의 시간성에 주목하여 ‘上’이 어떤 동사들과 결합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동사들과 결합할 수 없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상적 관계를 기반으로 ‘上’이 가지는 시간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V上’ 구조에 대한 논의와 그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V上’ 구조가 하나의 단어(詞)인지 아니면 구(短語)인지 그 기준을 세우기 힘들다. ‘V上’은 일부 사전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수록하고 있으나, 일부 사전에서는 수록하고 있지 않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上’을 분류한 후에 ‘V上’이나 ‘V’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范曉(2009)는 이에 대해 이미 ‘V上’을 하나의 단어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¹⁾

둘째, 張燕春(1995), 劉月華(1998), 范曉(2009)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는 보어 성분 ‘上’의 의미와 관련된 연구에 치우쳐 왔다. 물론 보어성분 ‘上’의 다양한 의미와 용법을 파악하는 데는 용이할 수 있겠지만, 방향보어 ‘上’과 결합할 수 있는 동사, 결합할 수 없는 동사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劉月華(1998: 15-16)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 방향보어와 앞에 결합하는 동사는 제한적이다”고 하였다. 즉,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는 어떤 제한적 의미를 지닌 동사들과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러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동사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또한 각 방향보어와 결합하는 동사를 열거하였다. 그에 따르면 보어 앞에 온 동사를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上’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V’에 대한 분석과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蔣華(2003)는 “많은 ‘동사+上’구조는 형식적으로 같지만 실제로 다르다”고 하며 “‘上’의 분류에 따라 동사와 결합할 때 ‘上’의 의미가 달라진다²⁾”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고는 상(aspect)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1) 范曉(2009: 149)에 의하면 ‘獻上’, ‘看上’, ‘犯上’, ‘加上’ 등이 사전에 수록하고 있지만, ‘趕得上’, ‘趕不上’은 수록하면서 ‘趕上’은 오히려 수록하지 않았다.

2) 蔣華(2003)는 ‘V’와 ‘上’의 관계를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하였다.

- (1) ‘上’表示‘V’的趨向
- (2) ‘上’表示‘V’的結果
- (3) ‘上’表示‘V’的時態
- (4) ‘上’表示‘V’的語氣

4 현대중국어 ‘V上’ 구조 중 ‘上’의 시간성과 결합동사 연구

‘上’과 결합하는 동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胡裕樹, 范曉(1995: 42)는 “상은 시간의 과정 중에서 사건의 구성 방식을 관찰하는 것이다. 사건은 언어 중에서 문장으로 나타내며 문장의 각 성분이 상적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동사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上’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上’의 앞에 위치한 동사에 대한 연구도 ‘V上’ 구조의 습득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V上’ 구조에서 동사에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劉月華(1998: 25-27)는 방향보어 ‘上’을 방향, 결과, 상태 이 3가지 의미로 분류하고 ‘上’의 의미별로 ‘上’과 결합하는 동사를 다시 분류하였다. 그는 ‘上’이 방향의미에서 동사를 6종류로 나누고, ‘上’의 결과의미에서 동사를 12종류까지 분류하여 논의한다. 하지만 분류된 수가 너무 많아서 중국어 학습자가 학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張燕春(1995)은 ‘上’을 기본의미와 파생의미로 분류하고 동사를 8가지로 나누었다. 范曉(2009)는 ‘V上’ 구조를 4가지로 나누고 동사를 ‘V上’ 구조의 분류별로 다시 나누었다. 또한 어떤 동사는 단지 ‘타동사이거나 자동사이다’고 명확한 설명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上’과 결합할 수 없는 동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陳明舒(2005)는 ‘上’의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나의 포괄적 기능으로 설명한다. 그는 보어 ‘上’이 결합하는 동사의 의미특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중국어 학습자가 어떤 동사들이 보어 ‘上’과 결합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陳明舒가 분류한 ‘上’의 견해에 기초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본고는 ‘V上’ 구조에서 보어 ‘上’과 결합하는 동사를 연구 주제로 하여 ‘上’이 각 의미별로 어떤 동사와 결합하는지에 대해 살피고, ‘上’과 결합할 수 없는 동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上’은 시간성에 있어서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상(aspect)적 개념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1.3 연구방법

연구방법에 있어서 본고는 말뭉치(Corpus)자료 분석을 통한 통계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말뭉치 자료는 台灣 중앙연구원의 ‘現代漢語平衡語料庫4.0版’에서 추출한 것이다. ‘現代漢語平衡語料庫’는 전적으로 언어 분석을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모든 문장에 품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著’와 ‘上’이 동사와 결합하는 문장을 충분히 수집해놓았다. 본고에 인용된 일부 예문은 북경대학언어연구중심(北京大學語言研究中心)에서 추출한 말뭉치(北京大學語料庫)에서 인용한 것이다. 본고는 말뭉치 자료를 통해 ‘著’와 결합하는 동사가 있는 문장 6246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著’와 결합하는 동사 중에서 ‘上’과 결합할 수 있는 동사의 종류는 75.3%였으며 ‘上’과 결합할 수 없는 동사가 24.7%를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의 지속성 동사는 ‘上’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7) a. 登上廣告。
광고가 올라있다.
b. 登著廣告。
광고가 실려 있다.
- (8) a. 住上新房子。
새 집에 살게 되었다.
b. 住著新房子。
새 집에서 살고 있다.
- (9) a. 養上金魚。
금붕어를 키우기 시작했다.
b. 養著金魚。
금붕어를 키우고 있다.

6 현대중국어 ‘V上’ 구조 중 ‘上’의 시간성과 결합동사 연구

대부분의 동사는 예문(7-9)와 같이 ‘著’와 결합할 수 있으며 ‘上’과도 결합할 수 있다. ‘著’와 결합하는 동사는 ‘지속성동사’라고도 부른다. 본고의 분석 결과와 같이 ‘著’와 결합하는 동사 중에서 75.3%가 ‘上’과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上’이 시간성에 있어서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나머지 24.7%의 경우가 ‘上’과 결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著’와 결합하는 동사의 차이점을 통해 ‘上’의 시간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허성도(2007: 361-368)는 “보어 ‘上’은 새로운 상태에 진입하여, 그 상태에 계속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上’은 보어로서, 동작의 행위가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上’이 시간성에 있어서 지속성(持續性)³⁾을 지닌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의 ‘지속성’은 馬慶株(1992)의 정의를 따라 ‘著’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지속성’을 갖는다고 정의한 것이다.

‘著’의 상(aspect)적⁴⁾ 의미, 즉 시간성에 대한 연구는 鄧守信(1985), 龔千炎(1995), 戴耀晶(1997)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上’의 상적 의미와 시간성에서 동사의 행위가 지속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上’의 시간성에 주목하여 ‘上’이 어떤 동사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어떤 동사들과 결합할 수 없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상적 관계를 기반으로 ‘上’이 어떠한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기존 ‘V上’ 구조에 대한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구 범위를 한정한다.

2장에서는 陳明舒가 분류한 ‘上’을 기반으로 ‘上’과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을 살펴보고 ‘上’이 시간성에 있어서 지속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3) 馬慶株(1992: 2) 《漢語動詞和動詞性結構》에서 ‘著’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지속성동사(持續性動詞)’라고 정의한다.

4) 戴耀晶(1997: 3)는 “상(aspect)은 Comrie에 따르면 상황(situation)의 내적인 시간 구성 방식에 따라 의미도 다르다”고 하며 “상황은 일반적으로 동사에 대한 얘기한 것이다. 상황의 분류는 늘 동사의 분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3장에서는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上’과 결합할 수 없는 동사를 분류하며 이러한 동사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상(aspect)적 개념을 통해 ‘上’과 기시상 표지 ‘起來’, 지속상 표지 ‘著’, 완료상 표지 ‘了’를 비교하여 ‘上’의 시간성을 살펴본다.

2. ‘上’과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

‘上’의 의미에 따라 결합하는 동사가 다르다. ‘上’과 결합하는 각 동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陳明舒(2005)에서 이미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고는 ‘上’이 시간성에 있어서 지속성을 지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그의 견해를 바탕으로 ‘上’과 결합하는 동사가 ‘著’와도 결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직접공간의 ‘上1’과 결합하는 동사

陳明舒(2005: 49)는 “보어 ‘上’은 종점에 도달하여 그곳에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고는 그의 기준에 따라 ‘上’과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먼저 공간적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어 ‘上1’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上1-1’, ‘上1-2’, ‘上1-3’, ‘上1-4’로 나누어 논의를 하였다. 그가 분류한 ‘上1’의 의미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上’의 분류	‘上’의 의미	동사의 의미특징	동사의 예
보어 ‘上1-1’	[-상향이동][-동작성]	[+동작성][+상향이동]	升 跳 登
보어 ‘上1-2’	[+상향이동][+동작성]	[+동작성][-상향이동]	走 爬 踏 駛 開 擁 送 攙 擠 迫 端 騎
보어 ‘上1-3’	[+이동][+부착]	[+첨가][+부착] [+고정]	漆 寫 畫 罩 穿 戴 繫 關 拉 沾 塗 披 覆 扣 印 閉 掛 打 刻 圍 貼 蓋 套 鎖 撒 繡 安 烙 換
보어 ‘上1-4’	[+이동][+(화학적) 결합]	[+결합]	接 附 放 添 加

[표 1] 보어 ‘上1’과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

위의 [표1]에 따르면 보어 ‘上1’은 모두 직접공간의 의미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1 ‘上1-1’과 결합하는 동사

먼저 보어 ‘上1-1’과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을 살펴보자.

- (10) 氣球升上了天空。
풍선이 하늘로 올라갔다.
- (11) 跳上舞台。
무대에 뛰어 올라갔다.
- (12) 登上山頂。
산정상에 올라갔다.

陳明舒(2005: 61)의 견해에 따르면 보어 ‘上1-1’과 결합하는 동사 자체는 동작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의 상향이동을 나타낸다. 그러나 보어 ‘上1-1’은 동작성이 없으며, 종점에 존재함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존재함은 곧 동작의 계속성을 보장한다.

본고는 ‘上1-1’은 계속성뿐만 아니라 시간성에 있어서 지속성도 지닌 것으로 본다. 즉, 예문(10)의 ‘氣球’, 예문(11), (12)에서 생략된 화자가 ‘升’, ‘跳’, ‘登’이라는 행위를 시작하여 지속되는 것은 ‘上1-1’이 시간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아래에서 보어 ‘上1-1’과 결합하는 동사들이 ‘著’와 결합하는 예문을 보자.

- (13) 大家跳著舞。
다들 춤을 추고 있다.

10 현대중국어 ‘V上’ 구조 중 ‘上’의 시간성과 결합동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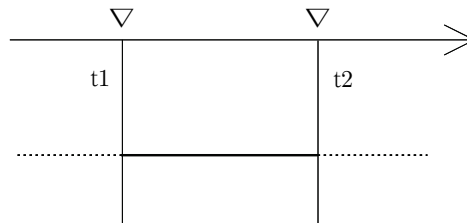
(14) 屋頂升著王室的旗子。

옥상에서 왕실의 깃발을 게양하고 있다.

(15) 報上登著廣告。

신문에 광고가 올라있다.

‘著’는 현대 중국어에서 지속상을 나타내는 형식표지이며, 사건에서 지속단계(持續段durative period) 구성에 대한 관찰을 반영한다. ‘著’는 문장에서 표현하는 사건이 현재 끊임없는 연속의 과정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문(13-15)는 동태적 사건으로 동작 ‘跳舞’, ‘升旗’, ‘登廣告’는 지속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著’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著’가 시간 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그림 1] ‘著’가 시간 축에서 나타내는 지속 과정

[그림1]에서 t1-t2는 시간에 대한 관찰구간을 나타낸다. 예문(13-15)는 그림에서 관찰하는 시간에 대한 구간이 각각 ‘춤을 추는 동안’, ‘깃발을 게양하는 동안’, ‘광고를 올리는 동안’이다. 실선은 사건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춤을 추는 동안’, ‘깃발을 게양하는 동안’, ‘광고를 올리는 동안’ 등 사건의 지속과정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는 동태적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점선으로 나타내며 동작 자체가 이어져 형성되는 지속과정을 표시한다.

본고의 관찰에 따르면 예문(13-15)과 같이 보듯이 ‘上1-1’과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著’와도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上1-1’과 결합하는 동사 ‘升’, ‘跳’, ‘登’은 모두 지속성동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보어 ‘上1-1’과

결합하는 동사는 [+동작성], [+상향이동], [+지속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지닌다.

2.1.2 ‘上1-2’와 결합하는 동사

다음으로 보어 ‘上1-2’와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을 보기로 하자. 陳明舒의 견해에 따르면 보어 ‘上1-2’와 결합하는 동사는 실제 공간에서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상향이동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보어 ‘上1-2’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의미를 지닌다. 즉 ‘上1-2’는 상향이동을 나타내며 종점에 존재함을 나타낸다. ‘上1-2’가 나타내는 존재함은 동작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上1-2’의 이러한 계속성이 시간성의 측면에서 지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6) 走上五樓。
5층에 올라갔다.
- (17) 跑上五樓。
5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 (18) 爬上窗台。
창틀에 올라갔다.

예문(16-18)이 시간성에 있어서 화자가 ‘走’, ‘跑’, ‘爬’라는 행위를 시작하여 그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上1-2’가 있기 때문이다. ‘上1-2’로 인해 ‘上1-2’와 결합하는 동사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上1-2’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사가 들어 있는 예문을 보자.

- (19) 走上一個月。
한 달 동안 걷는다.

12 현대중국어 ‘V上’ 구조 중 ‘上’의 시간성과 결합동사 연구

(20) 騎上一段時間。

한 동안 탄다.

(21) 開上幾個鐘頭。

몇 시간 동안 운전한다.

예문(19-21)은 ‘一個月’, ‘一段時間’, ‘幾個鐘頭’의 시간(time duration) 동안 동사 ‘走’, ‘騎’, ‘開’라는 행위가 지속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사 ‘走’, ‘騎’, ‘開’라는 비상향이동(非向上移動) 동사가 보어 ‘上1-2’와 결합하는데, 시간사와 만나는 경우에는 각 시간사가 나타내는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예문(19-21)과 같이 ‘上1-2’와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著’와도 결합할 수 있다. 즉 ‘上1-2’와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지속성동사에 속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上1-2’로 인해 ‘上1-2’와 결합하는 동사는 지속성을 표시하며, 보어 ‘上1-2’와 결합하는 동사는 [+동작성], [-상향이동], [+지속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지닌다.

2.1.3 ‘上1-3’과 결합하는 동사

陳明舒(2005: 61)에 따르면 보어 ‘上1-3’과 결합하는 동사는 동사 자체가 부착, 첨가, 고정의 의미를 지닌다. 보어 ‘上1-3’은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물체가 어떤 대상범주로 이동하여 그곳에 부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부착이나 고정, 혹은 첨가도 실제로 모두 존재의 각각 다른 양상이다. 그러므로 보어 ‘上1-3’도 종점에 도달하여 그곳에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2) 穿上大衣。

코트를 입는다.

(23) 關上門。

문을 닫는다.

(24) 換上一件乾淨的衣服。

깨끗한 옷 한 벌로 갈아입는다.

예문(22-24)의 ‘부착’, ‘접촉’, ‘고정’은 실제로 존재의 양상이므로 본고는 ‘上1-3’이 나타내는 존재함은 ‘穿’, ‘關’, ‘換’이라는 동작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上1-3’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사가 들어 있는 예문을 보자.

(25) 周恩來總理的兩雙皮鞋能穿上二十年。

周恩來 총리는 두 켄레를 20년이나 신을 수 있다.

(26) 關上幾小時。

몇 시간이나 닫는다.

(27) 新輪胎換上三天就爆胎了。

새 타이어를 바꾼 지 3일인데 벌써 펑크 났다.

예문(25-27)은 ‘二十年’, ‘幾小時’, ‘三天’의 시단 동안 동사 ‘穿’, ‘關’, ‘換’이라는 부착, 접촉, 고정의 행위가 지속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동사가 ‘V上’ 구문에서 시간사와 만나는 경우에는 각 시간사가 나타내는 시단 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上1-3’과 결합하는 동사들은 ‘著’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가 지속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8) 那女孩穿著裙子。

그녀는 치마를 입고 있다.

(29) 很多商店都關著門。

많은 상점은 문을 닫고 있다.

14 현대중국어 ‘V上’ 구조 중 ‘上’의 시간성과 결합동사 연구

(30) 正換著毛褲, 周恩來來了電話。

바지를 갈아입고 있는데 周恩來가 전화했다.

예문(28-30)은 모두 [그림1]로 설명할 수 있다. ‘著’는 그림에서 보듯이 한 사건의 지속부분에 대해서만 관찰하는 것이다. 예문에서 ‘那女孩穿著裙子’, ‘很多商店都關著門’, ‘換著毛褲’라는 사건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완료되었는지는 관찰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직 지속부분만 관찰하는 것이다.

예문(28-30)과 같이 ‘上1-3’과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지속성을 나타내는 조사 ‘著’와도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上1-3’과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지속성 동사에 속한다.

이상과 같이 보어 ‘上1-3’과 결합하는 동사는 [+첨가], [+접촉], [+부착], [+고정], [+지속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지닌다.

2.1.4 ‘上1-4’와 결합하는 동사

마지막으로 보어 ‘上1-4’와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을 보기로 하자. 陳明舒(2005: 63)에 따르면 보어 ‘上1-4’와 결합하는 동사는 결합의 의미를 나타낸다. 보어 ‘上1-4’는 물체가 대상범주에 진입하고, 상호 결합하여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화학적 결합도 결국은 각 요소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보어 ‘上1-4’도 종점에 도달하여 그곳에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31) 把電腦跟電視接上。

컴퓨터와 TV를 연결한다.

(32) 我寄了一份禮物, 並且附上一張賀卡。

내가 선물을 보내면서 축하카드를 한 장 첨부하였다.

(33) 添上一杯醋。

식초를 한 잔 넣었다.

본고는 예문(31-33)에서 동사 ‘接’, ‘附’, ‘添’과 같이 ‘上1-4’로 인해 나타내는 존재함은 바로 동작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上1-4’와 결합하는 동사들은 ‘著’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가 지속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4) 在管子的盡頭連接著一只扁形罐子。
관의 끝에 평평한 캔이 한 개 연결되어 있다.
- (35) 芳林嫂不住的向火堆上添著劈柴。
芳林형수는 계속 불더미에 장작을 올려놓는다.
- (36) 她卻仍在“胡”字上面加著一個“朱”字！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胡자에다가 朱자를 쓰고 있다.

예문(34-36)도 모두 [그림1]로 설명할 수 있다. ‘著’는 한 사건의 지속부분에 대해서만 관찰하는 것이다. 예문에서 ‘管子的盡頭連接著一只扁形罐子’, ‘火堆上添著柴’, ‘“胡”字上面加著一個“朱”字’라는 사건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완료되었는지는 관찰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오직 지속부분만 관찰하는 것이다.

예문(34-36)과 같이 ‘上1-4’와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著’와도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上1-4’와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지속성동사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보어 ‘上1-4’와 결합하는 동사는 [+결합], [+지속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지닌다.

2.2 공간은유의 ‘上2’와 결합하는 동사

陳明舒는 대상범주가 은유되거나 추상화되는 보어 ‘上2’는 다시 ‘上2-1’, ‘上2-2’의 두 종류로 나누어 논의를 하였다.

16 현대중국어 ‘V上’ 구조 중 ‘上’의 시간성과 결합동사 연구

‘上’의 분류	‘上’의 의미	동사의 의미특징	동사의 예
보어 ‘上2-1’	‘上1-1’과 관계되는 요소와 은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유화된 대상을 나타낸다.	[+추상적][-수직 고도]	登 ⁵⁾ 考 評 當 住 買 開 拉 聽 睡
보어 ‘上2-2’	‘上1-3’, ‘上1-4’에서 파생된 것이다.	[+추상적][+부착] [+첨가]	染 算 說 用 趕 加

[표 2] 보어 ‘上2’와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

2.2.1 ‘上2-1’과 결합하는 동사

수직공간이 은유되는 경우에 사용된 보어 ‘上2-1’은 다시 (A), (B), (C)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는 이 세 가지 경우가 각각 ‘上2-1’로 인해 동작의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정한 등급에 도달하여 그곳에 존재함을 나타내는 ‘上2-1(A)’를 보자.

- (37) 登上事業的頂峰。
사업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
- (38) 考上大學。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 (39) 評上三好學生。
모범생으로 선정되었다.
- (40) 當上所長。
소장으로 임명받았다.

5) ‘登’이라는 동사는 ‘上1-1’과도 결합하는데, ‘上1-1’과 결합하는 동사 ‘登’은 [+동작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동태동사(動態動詞)로 본 것이다. ‘上1’은 직접공간 표시라 ‘上1’과 결합하는 동사 ‘登’도 직접공간에서의 동작동사이다. 그러나 ‘上2-1’과 결합하는 동사 ‘登’은 정태동사(靜態動詞)로 본다. ‘上2’는 공간은유 표시이다. ‘上2’와 결합하는 동사 ‘登’은 추상적으로 일정한 등급에 올라간다는 뜻이다. 동태와 정태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陳明舒에 따르면 보어 ‘上2-1’과 결합하는 동사의 동작 행위는 주로 추상화된 사회적 개념이다. 한편 보어 ‘上2-1’은 일정한 등급에 도달하여 그 등급에 존재함을 표시한다. 본고는 ‘上2-1’의 이런 존재함은 시간성에 있어서 지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자 한다. 다음은 ‘上2-1(A)’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사가 들어 있는 예문을 보자.

- (41) 他登上山頂有一陣子了。
그는 산정상에 올라간 지 한참이나 되었다.
- (42) 他考上大學有一段時間了。
그는 대학에 붙은 지 한참이나 되었다.
- (43) 他才被評上三等學生沒多久, 就被抓到考試作弊。
그는 모범생으로 뽑히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미 컨닝한 것이 걸렸다.
- (44) 每名員工當上一天安全員。
모든 직원이 하루 동안 안전 담당관을 하게 된다.

예문(41-44)는 모두 보어 ‘上1-1’을 표시하는 [그림1]로 설명할 수 있다. 예문(41-44)의 ‘一陣子’, ‘一段時間’, ‘沒多久’, ‘一天’이 [그림1]에서 t_1 부터 t_2 까지의 거리에 해당한다. t_1 부터 t_2 까지의 거리는 ‘上2-1(A)’의 동작의 행위가 지속되는 시간을 표시한 것이다. 다음에서 ‘上2-1’과 결합하는 동사들이 ‘著’와 같이 결합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45) 像散步一樣登著山。
산책하는 듯이 등산을 하고 있다.
- (46) 十點還考著試呢。
10시까지 아직도 시험을 보고 있다.

(47) 孩子們在認真地評著小報！

아이들은 신문을 열심히 평가하고 있다.

(48) 好好地當著一個業務副團長呢。

업무 부단장을 잘 하고 있네.

예문(45-48) 역시 모두 2.1장에서 소개한 [그림1]로 설명할 수 있다. t1-t2는 시간에 대한 관찰구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문(45-48)은 관찰하는 시간에 대한 구간이 각각 ‘登著山’, ‘考著試’, ‘評著小報’, ‘當著業務副團長’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아마도 동태적 과정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그림1]에서 점선으로 나타내며 동작 자체가 이어져 형성되는 지속과정을 표시한다. 즉 ‘登山’, ‘考試’, ‘評小報’, ‘當業務副團長’ 등 사건의 지속과정을 표시한 것이다.

다음은 ‘上2-1’에서 (B)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사가 들어 있는 예문을 보자.

(49) 住上了新房子。

새 집에 살게 되었다.

(50) 買上了電腦。

컴퓨터를 사게 되었다.

(51) 開上了汽車。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예문(49-51)의 ‘新房子’, ‘電腦’, ‘汽車’는 일반적인 수준의 시민들이 생활수준 향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면 그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처럼 ‘上2-1(B)’는 일정한 정도에 도달하고 그 정도에 존재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⁶⁾ 그러므

6) 陳明舒(2005: 66-67)

로 본고는 ‘上2-1(B)’가 그 정도에 존재함을 나타내는 기능은 ‘上2-1’ 앞에 온 동사의 행위가 지속되는 의미와 같은 것으로 보고자 한다.

‘上2-1(C)’는 시간사와 만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본고의 관찰에 따르면 ‘上2-1(C)’뿐만 아니라 ‘上2-1(A)’, ‘上2-1(B)’도 수량사와 결합이 가능하므로 ‘上2-1’은 여전히 지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이제 ‘上2-1(B)’의 동사들이 수량사와 만나서 ‘上2-1(C)’가 되는지 살펴보자.

(52) 我要在北京住上幾個月。

북경에 몇 개월이나 살게 되었다.

(53) 啤酒買上好一陣子了。

맥주를 산 지 한참이 되었다.

(54) 其實這部車只要開上一陣子，馬上就能適應。

실은 이 차는 잠깐만 운전하면 금방 적응할 수 있다.

예문(52-54)는 ‘幾個月’, ‘好一陣子’, ‘一陣子’의 시간(time duration) 동안 ‘住在北京’, ‘買啤酒’, ‘開車’라는 과정이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上2-1’과 결합하는 동사들은 ‘著’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가 지속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55) 家裏住著個美國孩子。

집에 미국 아이 한 명이 살고 있다.

(56) 當時正買著票，鬱悶死了。

당시에 표를 사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다.

(57) 阿南開著車來接我。

阿南이 차를 운전하고 나를 데리러 왔다.

예문(55-57) 역시 [그림1]로 설명할 수 있다. ‘著’는 이 그림에서 한 사건의 지속부분에 대해서만 관찰하는 것이다. 지속상(持續相) ‘著’는 한 사건의 지속과 연관되며 사건의 기타 부분, 예를 들어 기시상(起始相), 완료상(完了相)과는 관련이 없다.⁷⁾ 예문에서 ‘住著個美國孩子’, ‘買著票’, ‘開著車’라는 사건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완료되었는지는 관찰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오직 지속부분만 관찰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上2-1’과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著’와도 결합할 수 있으며 시간성에 있어서 지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上2-1’과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지속성동사에 속한다. 또한 보어 ‘上2-1’과 결합하는 동사는 [-추상적], [-수직 고도], [+지속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지닌다.

2.2.2 ‘上2-2’와 결합하는 동사

陳明舒에 따르면 보어 ‘上2-2’는 ‘上1-3’과 ‘上1-4’에서 파생된 것이다. 보어 ‘上2-2’는 상호 이동이 나타내는 변화나 상태의 표시를 주요한 기능으로 삼는다. 한편, 보어 ‘上2-2’와 결합하는 동사는 주로 추상적 행위를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58) 孩子染上了不良嗜好。

아이가 안 좋은 버릇이 들었다.

(59) 只要你進來, 我都會對你說上一句話。

당신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한 마디를 꼭 해줄 것이다.

(60) 一定要算上我們一份!

반드시 우리도 한몫을 꺼주라!

(61) 他終於用上了在大學學到的知識。

그는 결국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7) 胡裕樹·范曉(1995: 89)

예문(58-61)의 ‘染’, ‘算’, ‘說’, ‘用’ 등의 동사는 보어 ‘上1-3’과 결합하는 동사처럼 부작이나 첨가의 의미가 없다. 陳明舒는 이러한 상황을 새로운 상황에의 진입과 존재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 이에 대해서 본고는 ‘上2-2’가 나타내는 존재함은 시간성에 있어서 ‘染’, ‘算’, ‘說’, ‘用’이라는 동작의 지속성이 보장된 것으로 본다. 즉, ‘上2-2’로 인해 ‘上2-2’와 결합하는 동사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은 ‘上2-2’가 시간사와 같이 출현하는 경우를 보자.

- (62) 他染上病有一段時間了。
그는 병에 걸린 지 한 동안 되었다.
- (63) 他至少能夠跟妹妹說上一、兩分鐘的話。
그는 적어도 여동생과 1, 2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64) 我要用上一年時間來申請。
나는 1년이나 신청해야 한다.

예문(62-64)는 ‘染病’, ‘說話’, ‘申請文書’라는 사건이 시작하여 ‘一段時間’, ‘一、兩分鐘’, ‘一年’의 시단 동안 동사 행위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上2-2’와 결합하는 동사들은 ‘著’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가 지속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65) 染著鮮血的唇。
피에 물든 입술.
- (66) 兩歲的女兒, 興奮地說著自己對首都的第一印象。
2살짜리 딸은 흥분하면서 수도에 대한 자신의 첫 인상을 얘기하고 있다.

8) 陳明舒(2005: 71)

(67) 一個背包用了二十多年, 現在還用著。

배낭을 20년이나 사용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예문(65-67)에서 ‘染著鮮血’, ‘說著對首都的第一印象’, ‘背包還用著’라는 사건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완료되었는지는 관찰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직 지속부분만 관찰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上2-2’와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著’와도 결합할 수 있으며 시간성에 있어서 지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上2-2’와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지속성동사에 속한 것이다. 또한 보어 ‘上2-2’와 결합하는 동사는 [-추상적], [+부착], [+첨가], [+지속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지닌다.

2.3 시간은유의 ‘上3’과 결합하는 동사

시간 개념과 관련된 보어 ‘上’은 ‘上3’으로 분류한다.⁹⁾ ‘上3’은 ‘시작과 지속’이라는 의미기능을 갖는다.¹⁰⁾ ‘上3’은 다시 다음과 같이 하위분류할 수 있다.

‘上’의 분류	‘上’의 의미	동사의 의미특징	동사의 예
보어 ‘上3-1’	새로운 상태에 진입하여 존재하거나 동작 행위가	[-동작성][+심리적][+추상적]	愛 恨 喜歡 養 看
		[+동작성]	吃 飄
보어 ‘上3-2’	지속되는 상태에 존재함을 나타낸다.	[+동작성]	哆嗦 咳嗽 議論 嚷嚷 吵鬧 聊 跑
		[-동작성][+추상적]	忙 熱 折騰

[표 3] 보어 ‘上3’과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

陳明舒에 따르면, ‘上3’은 어떤 상황이 은유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진

9) 陳明舒(2005: 76)에 의하면 ‘上1’과 ‘上2’도 기본적으로는 모두 시간과 관계되는 개념이다. 단지 그들이 나타내려는 중심 내용이 공간이었을 뿐이다.

10) 陳明舒(2005: 75)에 따르면 이는 劉月華의 견해에 따라 ‘새로운 상황으로의 진입’이라는 용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입하여 그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나타낸다. ‘上3’에 대해 范曉는 이러한 ‘V+上’구를 동태식(動態式)으로 본다.¹¹⁾ 동태식의 ‘上’은 대부분이 동태조사 ‘了’, ‘著’, ‘起來’ 등을 써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동태식은 ‘목적어형 동태식’과 ‘보어형 동태식’으로 나뉜다.¹²⁾ 陳明舒도 마찬가지로 ‘上3’을 ‘목적어가 있는 경우’와 ‘목적어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본다. 본고는 ‘上’과 결합하는 동사의 의미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上3’과 결합하는 동사의 의미특징에 따라 ‘上3’과 결합하는 동사를 다시 분류하고자 한다.

2.3.1 ‘上3-1’과 결합하는 동사

먼저 陳明舒가 제시한 목적어가 있는 ‘上3-1’의 예문을 보자.

- (68) 缸裏又養上金魚了。
어항에 또 금붕어를 키우기 시작했다.
- (68’) 缸裏又養了金魚了。
어항에 금붕어를 키우기 시작했다.
- (69) 外面又飄上雪花了。
밖에 또 눈꽃이 내리기 시작했다.
- (69’) 外面又飄著雪花了。
밖에 또 눈꽃이 내리고 있네.

范曉(2009: 143)는 예문과 같은 ‘V+上’구에서의 ‘上’은 대부분이 동태조사 ‘了’, ‘著’, ‘起來’ 등을 써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기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了’, ‘著’, ‘起來’는 모두 상(aspect)적 개념으로 앞에 동사가

11) 范曉(2009: 132)는 動態式에 대해서 得/不를 삽입하여 가능태를 만들 수 없는 것은 動態式이라고 부른다. ‘上’은 동사에 붙어 동작의 情態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12) 范曉(2009: 144) 참조.

24 현대중국어 ‘V上’ 구조 중 ‘上’의 시간성과 결합동사 연구

나타내는 시간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上’도 ‘了’, ‘著’, ‘起來’처럼 시간성을 지닌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동태조사 ‘了’, ‘著’, ‘起來’와 비교하여 ‘上’의 시간성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우선 다음의 예문을 보자.

- (70) 池塘裡養上魚了。
못에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다.
- (71) 外邊飄上雪花了。
밖에 눈꽃이 내리기 시작했다.
- (72) 大家都勸你休息一會兒, 怎麼又看上書了。
다들 쉬라고 했더니 왜 또 책을 보니?

陳明舒는 예문(70-72)와 같이 보어 ‘上3’은 모두 ‘養魚’, ‘飄雪花’, ‘看書’라는 새로운 상태로 진입하여, 그 상태가 계속됨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본고는 이에 대해 ‘上3’으로 인해 이 세 가지의 상황으로 진입하여 그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上3’의 지속성을 더 뚜렷하게 살펴보기 위해 시간사가 들어 있는 예문을 보자.

- (73) 他愛上她好幾個月了。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된 지 몇 개월이나 되었다.
- (74) 村民們領養30元一只的“扶貧羊”, 拉回家養上一年。
촌민들이 30원으로 ‘구조양’을 집에 데리고 가서 1년이나 키웠다.
- (75) 雨絲還要持續飄上一整天。
비는 아직도 하루 종일 계속해서 오게 될 것이다.

(76) 瞧著那兒的大象猴子，能呆呆地看上一整天。

저기에 있는 코끼리와 원숭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루 종일 쳐다볼 수도 있다.

예문(73-76)은 ‘好幾個月’, ‘一年’, ‘一整天’의 시간 동안 동사 ‘愛’, ‘養’, ‘飄’, ‘看’이라는 행위가 지속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사 ‘愛’, ‘養’, ‘飄’, ‘看’이라는 동사가 보어 ‘上3-1’과 결합하는데, 시간사와 만나는 경우에는 각 시간사가 나타내는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다음은 ‘上3’과 결합하는 이러한 동사들이 ‘著’와 같이 결합하는지 살펴보자.

(77) 我愛你，就像愛著生我養我的母親！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날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78) 李敏在陽台上養著花。

李敏은 베란다에서 꽃을 키우고 있다.

(79) 天空仍然飄著細雨。

하늘에 아직도 비가 오고 있다.

(80) 專心地看著他畫畫。

그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열심히 보고 있다.

예문(77-80)에서 관찰하는 시간에 대한 구간은 각각 ‘愛著’, ‘養著’, ‘飄著’, ‘看著’이다. [그림1]에 적용하면 점선은 역시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아마도 동태적 과정이 있음을 나타낸다. 실선은 동작 자체가 이어져 형성되는 지속과정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愛著母親’, ‘養著花’, ‘飄著細雨’, ‘看著他畫畫’ 등 사건의 지속과정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上3-1’과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著’와도 결합할 수 있다. 따라

서 ‘上3-1’과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지속성동사에 속한다.

陳明舒는 ‘上3-1’과 결합하는 동사의 의미특징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上3-1’이 나타난 문장에서 목적어를 수반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본고는 ‘上3-1’과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著’와도 결합할 수 있으며 시간성에 있어서 지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上3-1’과 결합하는 동사는 의미특징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동작성이 없으며 심리적인 동사이다. 이런 동사의 의미특징은 [-동작성], [+심리적], [+지속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다. ‘愛’, ‘恨’, ‘喜歡’ 같은 동사가 이에 속한다. 하나는 동작성이 있으며 추상적인 동사이다. 이런 동사의 의미특징은 [+동작성], [+추상적], [+지속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닌다. ‘養’, ‘飄’, ‘看’, ‘吃’ 같은 동사가 이에 속한다.

2.3.2 ‘上3-2’와 결합하는 동사

다음은 목적어가 없는 ‘上3-2’를 보자.

- (81) a. 虎妞的嘴唇哆嗦上了。
 虎妞의 입술은 부들부들 떨린다.
 b. 虎妞的嘴唇哆嗦起來了。
 虎妞의 입술은 부들부들 떨린다.

- (82) a. 她又嚷嚷上了。
 그녀가 또 떠들어댄다.
 b. 她又嚷嚷起來了。
 그녀가 또 떠들어댄다.

예문(81a)는 ‘上3’으로 인해 ‘哆嗦’이라는 동사가 정태로부터 동태에 진입하게 된다. ‘上3’은 예문(81)에서 ‘虎妞的嘴唇哆嗦’라는 사건의 시작부분에 대한 관찰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문(82a)에서 동사 ‘嚷嚷’는 ‘上’과 결합해서 사용

된다. 이때 ‘上3’으로 인해 ‘她嚷嚷’라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예문(81a)와 예문(82a)의 ‘上’대신 ‘起來’를 사용하여 예문(81b), (82b)로 되는데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上3-2’의 지속성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시간사가 들어 있는 예문을 보자.

- (83) 和親友們好好地聊上半天。
친구들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
- (84) 老師只要一生氣就可以罵上三個小時。
선생님은 화만 나면 3시간 동안 혼을 낼 수 있다.
- (85) 孩子已經鬧上一小時了。
아이가 이미 한 시간 동안 떠들었다.

예문(83-85)는 ‘半天’, ‘三個小時’, ‘一小時’의 시간 동안 동사 ‘聊’, ‘罵’, ‘鬧’라는 행위가 지속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聊’, ‘罵’, ‘鬧’라는 동사는 보어 ‘上3-1’과 결합하는데, 이들이 시간사와 만나는 경우에는 동작 행위가 각 시간사가 나타내는 시간 동안 지속된다.

다음은 ‘上3’과 결합하는 이러한 동사들이 ‘著’와 같이 결합하는 경우이다.

- (86) 大隊長指著敏, 狠狠地罵著。
팀장님이 민을 가리키면서 독하게 욕을 하고 있다.
- (87) 孩子吵著要糖吃呢。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떠들었다.
- (88) 他們聊著籃球的事。
그들이 농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예문(86-88)에서 관찰하는 시간에 대한 구간은 각각 ‘罵著’, ‘吵著’, ‘聊著’이다. 이를 [그림1]에 적용하면 점선 역시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동태적 과정이 있음을 나타낸다. 실선은 동작 자체가 이어져 형성되는 지속과정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大隊長罵著’, ‘孩子吵著’, ‘他們聊著’ 등 사건의 지속과정을 표시하는 것이다.

陳明舒는 ‘上3-2’와 결합하는 동사의 의미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上3-2’ 역시 문장에서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는다고만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본고는 ‘上3-1’과 같이 ‘上3-2’와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著’와도 결합할 수 있으며 시간성에 있어서 지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上3-2’와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지속성동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上3-2’와 결합하는 동사는 의미특징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동작성이 있으며 추상적인 동사이다. 이런 동사들은 [+동작성], [+추상적], [+지속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哆嗦’, ‘咳嗽’, ‘議論’, ‘嚷嚷’, ‘吵鬧’, ‘折騰’, ‘聊’, ‘跑’ 같은 동사가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동작성이 없으며 추상적인 동사이다. 이런 동사의 의미특징은 [-동작성], [+추상적], [+지속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닌다. ‘忙’, ‘熱’ 같은 동사가 이에 속한다.

3. ‘上’과 결합할 수 없는 동사의 특징

본장에서는 ‘著’와 결합하는 나머지 24.7%의 동사가 ‘上’과 결합할 수 없는 원인을 고찰하려고 한다. 본고는 먼저 동사가 ‘上’과 결합할 수 없는 원인을 찾기 위해 말뭉치 자료에서 도출한 ‘上’과 결합할 수 없는 24.7%의 동사를 ‘起來’, ‘過’, ‘了’, 그리고 시간사와 결합시켜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起來’, ‘過’, ‘了’는 현대 중국어에서 사건을 구성하는 기시상, 경험상, 완료상의 형식표지이고, 시간 부사는 사건의 시간 구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논의를 통하여 이런 동사는 시간성에 있어서 어떤 특성이 보이는지, 동사의 시간성이 ‘上’과 결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戴耀晶(1997)은 중국어의 ‘體’에 대해 “상은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이다”라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본고는 ‘上’과 결합할 수 없는 지속성 동사들의 시간성을 보기 위해 상 표지인 ‘起來’, ‘過’, ‘了’와 같이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속성 동사들은 대부분 ‘上’과 결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上’과 결합할 수 없는 동사의 자질을 설명하고 세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의 동사의 의미특징이 무엇인지, 동사분류에 어떤 동사가 속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방향성동사, 순간동사, 유표지 상태동사 등 선행연구에서 나온 동사 분류의 기준을 기반으로 다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3.1 방향성 동사(方向性動詞)

다음은 ‘著’와 결합하고 ‘上’과 결합하지 않는 [+방향성(方向性)]자질을 지닌 동사들이다.

握對指順照朝頂閃舉和(二聲/四聲)循側梳縮摟點
托探起分安反上仰踩倒噴歪映屏隨伸引昂

王媛(2006)은 방향성이라는 기준으로 현대 중국어 단음절 동사를 분류하였다. 그녀는 상하, 좌우, 전후 이 세 가지의 방향을 기준으로 각 동사가 어떤 방향의 동사인지를 분류하였다.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王媛이 정리한 방향성 동사(方向性動詞)¹³⁾의 기준에 따라 말뭉치 자료에서 도출된 ‘著’와 결합하고 ‘上’과 결합하지 않는 동사를 살펴본 결과, 방향성 동사는 34개가 있었다. 이러한 [+방향성] 자질을 지닌 동사들은 모두 ‘著’와 결합할 수 있는 지속성 동사들이다. 앞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속성 동사들은 대부분 ‘上’과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방향성(方向性)] 자질을 지닌 동사들은 예외다.

3.1.1 방향성 동사와 ‘起來’의 결합

먼저, [+방향성(方向性)] 자질을 지닌 지속성 동사들이 기시상(起始相) 표시 ‘起來’와 결합하는 경우를 보자.

(89) 她仰著小臉。
그녀는 얼굴을 들고 있다.

(89') 她把頭仰起來。
그녀는 머리를 들었다.

(90) 孩子們踩著泥地。
아이가 땅을 밟고 있다.

(90') *孩子們把泥地踩起來。

13) 여기서의 ‘방향성 동사’는 王媛이 말한 동작 자체가 추상적으로 존재하며 방향성을 표현하는 동사이다. 이러한 동사는 인간이 인지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三維공간의 기반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趨向性動詞’(방향동사)는 ‘아래부터 위로 향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 (91) 朝著前方前進。
 앞을 향해 전진한다.
 (91') *朝起來前方前進。

- (92) 他往後退著身子。
 그는 몸을 뒤로 물러나고 있다.
 (92') *他往後退起來。

예문(88-92)에서 ‘著’와 결합하는 지속성 동사들은 모두 공간적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는 동사들이다. 예문(89)의 동사 ‘仰’은 王媛이 정의한 방향성 동사 중에 ‘상향동사(上向動詞)’에 속한다. 상향동사 중에서 ‘仰’과 같은 지속성 동사이며 ‘上’과 결합하지 않는 동사로는 ‘舉’, ‘起’, ‘上’, ‘托’, ‘昂’, ‘蹦’ 등이 있다. ‘仰’, ‘舉’, ‘托’, ‘昂’, ‘蹦’은 ‘起來’와 결합할 수 있지만, ‘起’, ‘上’은 ‘起來’와 결합할 수 없다. 房玉清(1992: 24)은 ‘起來’와 결합할 수 없는 동사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起’, ‘上’처럼 동사 자체가 趨向의 의미를 지닌 동사는 ‘起來’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예문(90)의 동사 ‘踩’는 방향성 동사 중에 ‘하향동사(下向動詞)’에 속한다. 하향동사 중에서 ‘踩’와 같은 지속성 동사이며 ‘上’과 결합하지 않는 동사로는 ‘踩’, ‘倒’, ‘跔’, ‘澆’, ‘劈’, ‘撬’ 등이 있다. 이러한 하향동사는 ‘起來’와 결합하기 어렵다.

예문(91)의 동사 ‘朝’는 방향성 동사 중에 ‘전향동사(前向動詞)’에 속한다. 전향동사 중에서 ‘朝’와 같은 지속성 동사이며 ‘上’과 결합하지 않는 동사로는 ‘順’, ‘沿’, ‘逐’, ‘邁’, ‘循’ 등이 있다. 전향동사도 역시 ‘起來’와 결합하기 어렵다.

예문(92)의 동사 ‘退’는 방향성 동사 중에 ‘후향동사(後向動詞)’에 속한다. 후향동사 중에서 ‘退’와 같은 지속성 동사이며 ‘上’과 결합하지 않는 동사로는 ‘縮’가 있다. 후향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起來’와 결합하기 힘들다.

戴耀晶(1997: 96)은 ‘起來’를 기시상(起始體) 표지로 보았다. 기시상 표지 ‘起來’가 사용된 문장은 사건의 시작을 나타내며 동태적 변화를 표시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끝없이 연속된다고 하였다.

본고는 ‘起來’가 동작의 지속을 나타낸다는 것은 ‘起來’가 지니는 시간성이 강하다는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방향성 동사는 어떤 방향만 가리키는 동작을 표시하는데, 이러한 방향을 가리키는 행위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시작과 지속의 과정을 다 보여주기 힘들다. 따라서 ‘朝起來’, ‘退起來’는 성립하지 않는다. 방향성 동사가 기시상 표지 ‘起來’와 결합하기 힘든 이유는 이러한 방향성 동사는 시간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공간에서 어떤 방향을 표시하는 기능이 더 강해서 시간이 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상 표지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著’와 결합할 수 있지만 ‘上’과 결합할 수 없는 지속성 동사는 ‘起來’와 결합하기 힘든 반면, ‘著’와 결합할 수 있으며 ‘上’과도 결합할 수 있는 지속성 동사는 ‘起來’와 결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93) a. 後面站著一男一女。

뒤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서 있다.

b. 站上舞台。

무대에 올라가 서 있다.

c. 八萬名觀眾不由地站起來。

8만명의 관객들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섰다.

(94) a. 日本人都坐著小凳洗澡。

일본사람들은 작은 의자에 앉아 샤워를 한다.

b. 坐上巴士去旅行。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간다.

c. 寶寶坐起來了!

아기가 앉았다.

(95) a. 烏龜爬著前進。

거북이가 앞으로 기어가고 있다.

b. 爬上山坡。

언덕을 올라간다.

c. 如果跌倒了, 就爬起來。

만약 넘어지면 일어나라.

예문(93-95)에서 ‘著’와 결합하는 지속성 동사들은 모두 ‘上’과도 결합할 수 있으며 ‘起來’와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시상 표지 ‘起來’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上’과도 결합하기 쉬운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기시상 표지 ‘起來’는 시간성에 있어서 한 사건의 시작과 지속부분을 표시하기 때문에 동사가 ‘起來’와 결합할 수 있으면 ‘上’과도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3.1.2 방향성 동사와 ‘過’의 결합

두 번째는 [+방향성(方向性)] 자질을 지닌 지속성 동사들이 경험상(經驗相) 표지 ‘過’와 결합하는지 살펴보자.

(96) 指著前方。

앞을 가리키고 있다.

(96') *指過前方。

(97) 歪著頭。

머리를 기울이고 있다.

(97') *歪過頭。

(98) 河水映著倒影。

강물에 그림자가 비쳐있다.

(98') *河水映過倒影。

- (99) 花兒散著清香。
 꽃이 향기를 풍기고 있다.
 (99') *花兒散過清香。

예문(96-99)에서 동사 ‘指’, ‘歪’, ‘映’, ‘散’는 ‘不定向動詞’¹⁴⁾이다. 이러한 방향성 동사는 동작이 시작하는 단계부터 종결할 때까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성이 있지만, 방향을 가리키는 행위를 한 사건의 경험으로 보는 것은 어색하다. 따라서 ‘指過前方’, ‘歪過頭’라는 문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경험상 표지인 ‘過’는 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이며 한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過’는 상 표지로서 과정을 표시하며 시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성이 약한 방향성 동사와 결합하기 힘든 것이다.

3.1.3 방향성 동사와 ‘了’의 결합

세 번째로 [+방향성(方向性)] 자질을 지닌 지속성 동사들이 완료상(完了相) 표지 ‘了’와 결합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 (100) 邁著沉重的腳步。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다.
 (100') *邁了沉重的腳步。
 (101) 沿著大樹往上爬。
 나무를 따라 위로 기고 있다.
 (101') *沿了大樹往上爬。
 (102) 循著這個方向。
 이 방향을 따라간다.
 (102') *循了這個方向。

14) 王媛(2006)은 不定向動詞는 ‘有些動作的方向會有多種可能實現的空間方向，當然動作一旦發生就只表現為一定的可以明確的空間方向。’라고 정의하였다.

위의 예문(100-102)에서 나온 방향성 동사 ‘邁’, ‘沿’, ‘循’은 상 표지 ‘了’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완료상 표지 ‘了’는 중국어에서 완결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Comrie(1976)는 “상 표지는 있지만 시제 표지가 없는 언어에서는 시간 부사 등에 의해 문맥적으로 시간을 지시해주지 않는 한 문장들이 시간적인 관계에 있어 모호해지며, 이러한 경우 ‘미완료’의 상 표지를 갖는 것은 현재와 관련된 것으로, ‘완료’의 상 표지를 갖는 것은 과거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완료상 표지 ‘了’는 과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관찰인 것이다. 그러나 방향성 동사는 시간성에 있어서 한 사건의 완료 부분에 대해 관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의 과거를 표시하는 부사 ‘了’와 결합할 수 없다.

3.1.4 방향성 동사와 시간사의 결합

마지막으로 [+방향성(方向性)] 자질을 지닌 지속성 동사들이 시간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보자.

(103) 朝著前方。

앞을 향하다.

(103') *朝了三個小時。

(104) 指著前方。

앞을 가리킨다.

(104') *指了三天。

(105) 邁著沉重的腳步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다.

(105') *邁了三分鐘

王媛(2006)의 기준으로 분류한 방향성 동사는 위의 예문(103'-105')처럼 모

두 시간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간사는 어느 시간 구간 안에서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방향성 동사는 순간적으로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행위를 표시하는 동사라, 어떤 시간 구간에서 계속해서 방향을 가리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사와 결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방향성 동사는 모두 시간성을 나타내는 상 표지 ‘起來’, ‘過’, ‘了’, 그리고 시간사와 결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방향성 동사와 상 표지의 결합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	동사+‘起來’	동사+‘過’	동사+‘了’	시간사
방향성 동사	指, 順...	±	—	—	—

[표 4] 방향동사와 ‘起來’, ‘過’, ‘了’, 시간사의 결합

본고는 이러한 원인이 바로 방향성 동사의 시간성이 약하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므로 ‘지속성’이라는 시간성을 지닌 ‘上’은 이러한 방향성 동사와도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06) 手托著下巴。

손으로 턱을 지탱한다.

(106') *手托上下巴。

(107) 指著前方。

앞을 가리킨다.

(107') *指上前方。

(108) 朝著太陽。

태양을 향하다.

(108') *朝上太陽。

예문(106-108)에서 동사 ‘托’, ‘指’, ‘朝’라는 방향성 동사는 시간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성을 지닌 ‘上’과 결합하기 힘든 것이다.

3.2 순간동사(瞬間動詞)

胡裕樹; 范曉(1995: 173)에 따르면 순간동사는 그 동작이 지속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순간 시점에 불과하다. 만약 동사가 지속상의 표지인 ‘著’를 수반한다면 이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진행됨을 나타낸다. 지속동사가 ‘著’를 수반했을 때 반복의 의미가 없는 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자체가 하나의 기간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著’와 결합하지만 ‘上’과 결합하지 않는 [+순간] 자질을 지닌 동사들이다.

按 發 舉 梳 點 踱 撫 咽 綻 滿 抖 吞 分 催 渡 耕 拭

李路(2009)는 현대중국어의 순간동사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순간동사를 A와 B로 분류하였다. A류는 동태동사이며 한 시간축에서 시작점과 종점이 중첩하여 과정을 표시하지 않는다. B류 순간동사는 짧은 시간 안에 연속해서 나타나는 동작동사이다. B류 순간동사의 특징은 ‘著’와 결합하는데, 시간사와 결합하지 못하고 ‘三下’와 같은 동량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순간동사를 대상으로 중국어의 시간성과 관련된 기시상, 지속상, 완료상, 그리고 시간사의 결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2.1 순간동사와 ‘起來’의 결합

먼저 ‘著’와 결합할 수 있는 순간동사가 기시상 표지 ‘起來’와 결합하는 경우를 보자. 여기서의 ‘起來’는 한 사건이 시작하며 지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120) 他吞著口水

그는 침을 삼키고 있다.

(120') *他吞起口水來

(121) 綻著美麗的花朵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121') *綻起美麗的花朵來

예문(120-121)에 나온 ‘吞’, ‘綻’은 모두 순간동사이다. 예문(120)의 ‘吞’이라는 동사는 무엇을 삼키는 동작을 표시한다. 침을 삼키는 사건이 ‘吞’이라는 순간동사로 인해 동작의 행위가 시작하자마자 끝난 것을 표시한다. 그러나 예문(120')과 같이 ‘起來’는 한 사건에서 시작하여 지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상 표시라서 ‘吞’과 같은 순간동사와 결합하기 어렵다. 예문(121)에서 ‘綻’은 꽃이 피는 순간을 표시하는 순간동사이다. 꽃이 피는 사건은 동작이 시작하자마자 끝난다. 예문(121')과 같이 ‘綻’도 시작과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起來’와 결합하기 힘들다.

보어 ‘上’과 기시상 표시 ‘起來’는 모두 시작과 지속의 의미를 지닌다. 呂叔湘(1999: 474)은 보어 ‘上’이 ‘동작이 시작되어 계속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劉月華(1998: 104)도 ‘上’이 ‘시작’이라는 기능이 있는 것을 주장하였다. 陳明舒는, 시간은유의 보어 ‘上’은 ‘새로운 상태에 진입하고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속의 의미와 충돌되는 이러한 순간동사는 ‘上’과도 결합하기 어렵게 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22) 吞著口水。

침을 삼키고 있다.

(122') *吞上口水。

(123) 太陽照著月亮。

태양이 달을 비치고 있다.

(123') *太陽照上月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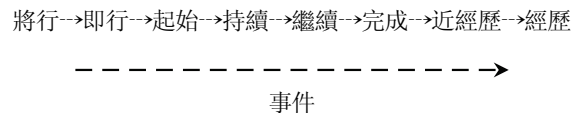
(124) 拭著眼淚。

눈물을 닦고 있다.

(124') *拭上眼淚。

예문(122-124)와 같이 [+순간] 자질을 지닌 동사는 모두 ‘著’와 결합하지만 예문(122'-124')와 같이 ‘上’과 결합할 수 없다. 예문에 나온 [+순간] 자질을 지닌 동사는 李路가 분류한 순간동사 중에서 B류 순간동사에 속한다. 그에 따르면 B류 순간동사는 대부분 ‘著’와 결합할 수 있지만 ‘著’는 동작의 행위에서 파생된 지속성이고, 동작 행위의 반복성을 말한다. 따라서 본고는 [+순간] 자질을 지니는 동사는 ‘著’와 결합할 수 있지만 지속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순간동사는 동작 행위가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성에 있어서 지속성을 지닌 ‘著’와 결합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본고 2장에서 증명하였듯이 ‘上’은 지속성을 지니므로 [-지속]인 순간동사는 지속성을 지닌 ‘上’과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龔千炎(1995)는 중국어의 상(aspect)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8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림 2] 상(aspect)개념

李路(2009: 24)에 따르면 순간동사는 [그림2]에서 나타난 기시상(起始相), 지속상(持續相), 계속상(繼續相)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순간동사는 기시상 표지 ‘起來’, 지속상 표지 ‘正在’, ‘正’, ‘著’, 그리고 계속상 표지 ‘下去’와 결합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순간동사는 ‘지속’의 의미를 지닌 ‘著’와 결합할 수 없지만 ‘반복’의 의미를 지닌 ‘著’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순간동사가 지속의 의미를 지닌 ‘起來’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3.2.2 순간동사와 ‘過’의 결합

다음은 ‘著’와 결합할 수 있는 순간동사가 경험상 표지 ‘過’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 (125) 咽著口水。
침을 삼키고 있다.
(125') *咽過口水。

- (126) 太陽照著月亮。
태양이 달을 비친다.
(126') *太陽過上月亮。

- (127) 拭著眼淚。
눈물을 닦고 있다.
(127') *拭過眼淚。

예문(125'-127')과 같이 순간동사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過’와 결합할 수 없다. 이러한 동사는 동작 행위가 순간적이라 과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3.2.3 순간동사와 ‘了’, 시간사의 결합

다음은 ‘著’와 결합할 수 있는 순간동사가 ‘了’나 시간의 일정한 양을 표시하는 시간사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예문을 보자.

- (128) 敲了三個小時的門。
문을 3시간 동안 두드렸다.

胡裕樹, 范曉(1995: 93)에 따르면 예문(128)의 ‘敲了三個小時的門’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완전한 사건이지만 한 차례의 동작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순간동사 ‘敲’가 한 번의 동작을 나타낸다면 ‘三個小時’의 시간과는 서로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간동사가 ‘了’와 공기하였다면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며 이 점은 ‘著’와 공기하는 상황에도 적용된다.¹⁵⁾ 예문(128)에서 순간동사 ‘敲’는 ‘了’, 시간사와 결합하여 어느 시간 구간에서 행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순간동사가 ‘起來’, ‘過’, ‘了’, 그리고 시간사와 결합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위의 ‘著’와 결합할 수 있는 순간동사는 모두 ‘著’가 ‘반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순간동사가 ‘著’와 결합할 수 있지만 ‘上’과 결합할 수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 (129) 眨著眼睛。
눈을 깜빡이고 있다.
(129') *眨上眼睛。

- (130) 踱著腳步。
천천히 걷고 있다.
(130') *踱上腳步。

- (131) 梳著頭髮。
머리를 빗고 있다.
(131') *梳上頭髮。

예문(129-131)에서 보듯이 순간동사는 ‘著’와 결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15) 胡裕樹, 范曉(1995: 93)에 의하면 순간동사가 ‘著’를 수반하여 나타내는 사건의 지속성은 반복하여 진행되는 동작을 반영한다. 차이점은 순간동사와 ‘著’의 조합은 동작이 반복되는 구체적인 횟수를 나타낼 수 없으며(*敲著兩次), 동작이 반복되는 구체적인 사건의 길이 역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敲著三分鐘). 이는 단지 추상화된 반복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著’의 의미는 지속성이 아니라 반복성이다. 반복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129’-131’)과 같이 지속성을 지닌 ‘上’과 결합할 수 없다.

순간동사와 상 표지의 결합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예	동사+‘起來’	동사+‘過’	동사+‘了’	시간사
순간동사	眨, 敲...	-	-	+	+

[표 5] 순간동사와 ‘起來’, ‘過’, ‘了’, 시간사의 결합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간동사는 사건의 시작, 지속을 표시하는 ‘起來’, 사건의 과정을 표시하는 ‘過’와 결합할 수 없다. 반면 ‘了’나 시간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이는 동작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동안 행위가 시작하자 끝난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순간동사는 지속성 동사에 비하여 시간성이 약한 동사라고 할 수 있다.

3.3 유표지 상태동사(有標志狀態動詞)

胡裕樹, 范曉(1995)는 일음절 상태동사의 주요한 통사적 특징을 제시하였다.¹⁶⁾ 본고는 ‘著’와 결합하는 일음절 동사를 위주로 胡裕樹, 范曉(1995: 237)가 분류한 일음절 상태동사 중의 ‘유표지 상태동사(有標記狀態動詞)’의 기준을 참고해서 ‘上’과의 결합을 살펴보고자 한다.

‘著’와 결합할 수 있는 유표지 상태동사는 대부분의 시간부사와 결합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起來’와 결합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起來’와 결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본고는 이러한 동사들을 다시 ‘起來’와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呂叔湘(1999: 441)에 의하면 동사 뒤에 출현한 ‘起來’는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¹⁷⁾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유표지 상태

16) 첫째, ‘的’을 붙이지 않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둘째, 보어로 가장 적합하다. 셋째, 동태 조사 ‘著’, ‘過’, ‘了’를 붙일 수 있다. 넷째, 시량 단어를 붙일 수 있다. 다섯째, 의문형식일 때 ‘是不是’ 형식을 자주 사용한다.

동사는 대부분 ‘起來’와 결합할 수 없는데, 다만 ‘起來’가 ‘동작이 아래부터 위로 향하다’, 혹은 ‘목적이나 결과를 표시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결합할 수 있다. 유표지 상태동사는 ‘起來’의 네 번째 의미, 즉 ‘어떤 일에 대해 짐작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결합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胡裕樹, 范曉(1995)는 유표지 상태동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安 撥 擺 綁 包 抱 背 編 補 閉 擦 藏 插 纏 盛 搭 打 戴 帶 伸 擋 等 點
 墊 疊 頂 釘 堵 抬 堆 對 蹲 躲 發 放 改 蓋 攔 種 刮 掛 關 跪 裹 畫 擠
 記 夾 串 接 舉 卷 扛 烤 摳 扣 捆 拉 縫 立 晾 留 摟 埋 抹 拿 捏 臥 描
 泡 噴 捧 批 漂 撲 舖 騎 沏 簽 繞 扔 撒 曬 燒 射 梳 刷 踏 拴 鎖 攤 躺
 趟 燙 套 提 填 挑 含 調 貼 塗 拖 托 駝 握 捂 吸 鑽 寫 綉 壓 醃 養 紫
 栽 站 蒸 架 裝 坐 叨 別 圍 吊

이상 열거한 유표지 상태동사는 모두 동태 조사 ‘著’, ‘過’, ‘了’와 결합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유표지 상태동사는 ‘上’과 결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표지 상태동사는 지속상 표지 ‘著’, 완료상 표지 ‘了’, 그리고 시간사와도 결합할 수 있는 시간성이 강한 동사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유표지 상태동사 중에서 ‘上’과 결합할 수 없는 동사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3.3.1 유표지 상태동사와 ‘起來’의 결합

먼저, ‘起來’가 ‘동작이 아래부터 위로 향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보자.

17) 呂叔湘(1999): 동사 뒤에 온 起來는 방향보어이다. a) 表示人或事物隨動作由下而上 b) 表示動作完成, 兼有聚攏或到達一定的目的、結果的意思 c) 表示動作開始, 並有繼續下去的意思 d) 做插入語或句子前一部分, 有估計或著眼於某一方面的意思

(132) 天塌了也能頂起來。

하늘이 무너져도 지탱할 수 있다.

(132') *天塌了也能頂上。

(133) 把東西舉起來。

물건을 들었다.

(133') *把東西舉上。

예문(132-133)에서 동사 ‘頂’, ‘舉’ 뒤에 온 ‘起來’는 모두 ‘동작이 아래부터 위로 향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다음은 ‘起來’가 ‘목적이나 결과를 표시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134) 把東西藏起來。

물건을 숨겼다

(134') *把東西藏上。

(135) 把橋架起來。

다리를 세웠다.

(135') *把橋架上。

(136) 把燈點起來。

불을 켜다.

(136') *把燈點上。

예문(134-136)의 동사 ‘藏’, ‘架’, ‘點’ 뒤에 ‘起來’는 ‘동작이 아래부터 위로 향하다’, 혹은 ‘목적이나 결과를 표시한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유표지 상태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134'-136')과 같이 ‘上’은 ‘시작하여 지속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起來’를 대체 사용할 수 없다. 반면 ‘起來’가

‘동작이 시작하여 계속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는 유표지 상태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37) a. 綁起布來。

천을 매었다.

b. 把布綁上。

천을 매었다.

(138) a. 飄起細雨來了。

이슬비가 오기 시작했다.

b. 飄上細雨了。

이슬비가 오기 시작했다.

(139) a. 養起魚來了。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다.

b. 養上魚了。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다.

(140) a. 鎖起門來。

문을 잠갔다.

b. 把門鎖上。

문을 잠갔다.

예문(137-140)에서 a는 모두 유표지 상태동사 ‘綁’, ‘飄’, ‘養’, ‘鎖’가 ‘동작이 시작하여 계속 된다’는 의미를 지닌 ‘起來’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표지 상태동사는 ‘起來’와 시간상에서 ‘시작과 지속’을 표시하는 ‘上’과도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上’은 ‘起來’와 같이 시작하여 지속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성과 관련 없는 ‘동작이 아래부터 위로 향하다’, 혹은 ‘목적이나 결과

를 표시한다’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지닌 ‘起來’는 유표지 상태동사와도 결합하기 힘들며 ‘上’과도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3.3.2 유표지 상태동사와 ‘過’의 결합

유표지 상태동사가 경험상 표지 ‘過’와 결합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胡裕樹, 范曉(1995: 238)는 문장이 ‘V著’의 문장형식을 함축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상태동사와 일반 동작동사를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상태동사는 ‘過’를 붙여 존재문이 될 수 있으며 ‘V著’의 문장형식도 함축할 수 있다. 따라서 ‘過’와 결합하는 유표지 상태동사는 지속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過’는 어떤 사물 혹은 사람이 과거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41) a. 手臂上綁過兩天紅布。

팔뚝에 붉은 천이 매어 있다.

b. 那兩天紅布還在手臂上綁著呢。

이틀 동안 팔에 붉은 천을 매었다.

예문(141)과 같이 유표지 상태동사 ‘綁’은 지속성을 지닌 ‘著’, 경험상 표지 ‘過’와 결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유표지 상태동사가 지속성을 지닌 ‘上’과 결합할 수 있는지 살펴보다.

(142) 手臂上綁上兩天的紅布。

이틀 동안 팔에 붉은 천을 매었다.

예문(142)와 같이 유표지 상태동사는 ‘上’과 결합할 수 있다. 胡裕樹, 范曉에 따르면 일반 동작동사는 ‘過’를 붙여 존재문이 될 수 있지만 ‘V著’의 문장형식을 성립할 수 없다. 이제 일반 동작동사가 ‘過’, ‘著’와 결합하는지 살펴보자.

(143) 家裡來過一位客人。

집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143') *家裡來著一位客人。

(144) 店裡丟過一件衣服。

가게에서 옷 한 벌을 잃어버렸다.

(144') *店裡丟著一件衣服。

예문(143'-144')와 같이 일반 동작동사는 ‘著’와 결합하지만, (143-144)와 같이 지속성을 지닌 ‘上’과도 결합할 수 없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45) *家裡來上一位客人。

(146) *店裡丟上一件衣服。

예문(145-146)과 같이 일반 동작 동사는 지속성을 지닌 ‘上’과 결합하지 않는다.

3.3.3 유표지 상태동사와 ‘了’, 시간사의 결합

다음은 유표지 상태동사가 완료상 표지 ‘了’, 시간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보자.

(147) a. 手臂上綁了一條紅布。

팔뚝에 붉은 천을 땀다.

b. 手臂上綁著一條紅布。

팔뚝에 붉은 천이 매어 있다.

c. 手臂上綁上一條紅布。

팔뚝에 붉은 천이 매어 있다.

(148) a. 紅布在壁上放了兩天。

붉은 천을 이틀 동안 벽에 걸어 두었다.

b. 那兩天布在壁上綁著

붉은 천이 이틀 동안 벽에 걸려 있었다.

c. 紅布在壁上放上兩天。

붉은 천이 이틀 동안 벽에 걸려 있었다.

胡裕樹, 范曉(1995: 238)에 따르면 상태동사는 ‘了’를 붙여 존재문이 될 수 있다. ‘了’는 동작의 완성으로 인해 어떤 사물 혹은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 ‘了’는 ‘著’와 바꿀 수 있고 전체 문장은 의미상 ‘V著’의 문장형식도 함축할 수 있다. 예문(147a), (147b), (148a), (148b)는 胡裕樹, 范曉가 이와 관련해 들고 있는 예문들이다. 여기에 유표지 상태동사는 ‘上’을 대입하면 예문(146c-147c)와 같이 문장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의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예	동사+‘起來’	동사+‘過’	동사+‘了’	시간사
방향성 동사	指, 順...	±	—	—	—
순간동사	眨, 敲...	—	—	+	+
유표지 상태동사	握, 含...	±	+	+	+

[표 6] 방향동사, 순간동사, 유표지 상태동사와 ‘起來’, ‘過’, ‘了’, 시간사의 결합

위의 [표6]은 ‘著’와 결합하지만 ‘上’과 결합할 수 없는 동사가 ‘起來’, ‘過’, ‘了’ 그리고 시간사와 결합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방향성 동사는 ‘過’, ‘了’, 시간사와 결합할 수 없지만, 순간동사는 ‘起來’, ‘過’와 결합할 수 없고, 유표지 상태동사는 모두 결합할 수 있다.

순간동사가 ‘著’와 결합하는 과정을 시간축에서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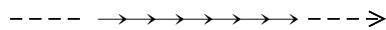


[그림 3] 순간동사가 ‘著’와 결합할 때의 지속 과정

[그림3]은 한 사건을 화살표로 표시한 것이다. 둥근 점은 각각 순간적으로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동작을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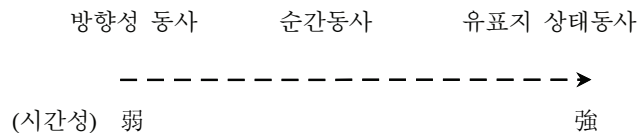
胡裕樹, 范曉는 순간동사는 의미상 시간상의 한 점(point)과 대응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戴耀晶(1997: 87)는 순간동사는 지속상 표지 ‘著’의 영향을 받아 의미적으로 동화시켜 그 결과 순간동사가 동작 행위의 복수를 표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著’의 지속성은 많은 순간적인 행위가 이어서 조합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著’로 인해 반복되어 둥근 점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끝나자마자 또 다른 둥근 점이 반복되는 것이다.

한편 상태동사는 사건 과정의 연속을 의미하여 동작이 어느 시단에 들어가 사건이 현재 끊임없는 연속 과정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과정을 시간축에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상태동사의 지속 과정

그러나 방향성 동사는 상 표지인 ‘起來’, ‘過’, ‘了’와 모두 결합할 수 없으므로 한 사건의 시단이나 시점이 될 수 없다. 이는 방향성 동사가 상대적 시간성이 약하기 때문에 상 표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시간성의 강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방향성 동사, 순간동사, 상태동사의 시간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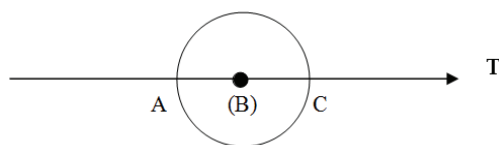
[그림5]와 같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지속성을 지

닌 ‘上’과 결합하기 쉽다. 반면, 왼쪽으로 갈수록 시간성이 약하므로 ‘上’과 결합하기 어려운 것이다.

4. ‘上’의 시간성과 상(aspect)적 관계

盧英順(2000)은 “한 동사가 지속성을 나타내는 구조 속에 나타날 수 있는지는 그 동사 자체가 [+지속]이라는 자질을 지니는지와 큰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지속]자질을 지닌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 사건은 늘 지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呂叔湘(1999: 473)은 동사로서의 ‘上’은 ‘동작이 시작되어 계속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동사가 ‘上’과 결합할 때 동작이 계속되는 점은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著’와 결합하는 동사가 ‘著’라는 지속상과 시간적으로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서 ‘上’과 결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어떤 차이점으로 인해 ‘著’와 결합하는 동사가 ‘上’과 결합할 수 없는지를 상(aspect)이라는 각도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상은 ‘상황의 내적 시간구성을 바라보는 방법’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으로써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6] 상(aspect)적 개념

[그림6]은 상의 개념을 표시하는 그림이다. T는 시간축(時間軸)을 표시하는데, A부터 C까지는 한 사건을 나타낸다. 이 때 완료상은 A~C 전체를 관찰한 것이고 미완료상은 그 중 일부분을 관찰한 것이다. A를 관찰하면 사건의 시작의 의미를 나타내며 기시상(起始相, inchoative aspect)에 해당한다. C를 관찰하면 사건의 종료의 의미를 나타내며 완료상(完了相, perfective aspect)에 해당한다. B를 관찰하면 사건의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며 지속상(持續相, durative)

에 해당한다.¹⁸⁾

陳明舒(2005: 76)에 의하면 표면적으로 볼 때 ‘上’ 중에서 ‘上3’만 시간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上1’, ‘上2’도 시간과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이 장에서 동사가 보어 ‘上’과 결합할 때 나타내는 시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上’과 지속상(持續相)

4.1.1 ‘上1’의 지속상

지속상은 미완료상의 하위범주이며 중국어에서 지속상은 상 표지 ‘著’에 의해 표현된다.¹⁹⁾ 지속상이란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건의 시작, 종결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

본고는 陳明舒의 견해에 따라 ‘上’을 ‘上1’, ‘上2’, ‘上3’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이 세 가지 동사와 결합하는 보어 ‘上’은 상적 의미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속상 표지 ‘著’와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동사 뒤에 온 보어 ‘上1’과 동사와 결합하는 ‘著’가 상적 의미에서 나타내는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49) a. 跳上舞。

춤을 춘다.

b. 跳著舞。

춤을 추고 있다.

18) B의 괄호는 B의 위치가 A와 C사이에 정해져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19) 戴耀晶(1997: 8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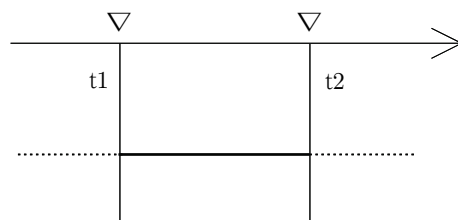
- (150) a. 走上這條路。
이 길을 가기 시작했다.
b. 走著這條路。
이 길을 가고 있다.

- (151) a. 把門鎖上。
문을 잠가라.
b. 把門鎖著。
문을 잠가둬라.

- (152) a. 接上管子。
호스를 연결시킨다.
b. 接著管子。
호스를 연결시키고 있다.

예문(149a-152a)는 동사가 각각 보어 ‘上1-1’, ‘上1-2’, ‘上1-3’, ‘上1-4’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예문(148-151)은 동사 뒤에 ‘著’와 ‘上’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胡裕樹, 范曉(1995: 89)는 ‘著’는 현대중국어에서 지속상 표지로서 사건의 시작(起始), 완료(終結)와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오직 사건의 지속부분을 반영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예문(148-151)의 b는 모두 사건의 지속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2장에서 소개하였듯이 戴耀晶(1997: 82)은 ‘著’의 지속상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그림 1] ‘著’가 시간 축에서 나타내는 지속 과정

[그림1]에서 t1-t2는 하나의 사건을 의미한다. [그림1]은 예문(149b-152b)에 해당하며 사건의 지속 과정만을 관찰하는 것이다.

다음은 시간사와 같이 결합할 때 ‘上’의 상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동사는 상에 관한 연구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만, 동사가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동사가 상적 의미를 표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다른 요소인 보어나 빈어 역시 상적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그러므로 ‘上’이 문장에서 상적으로 어떤 요소와 같이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찰해야 한다. 먼저 시간사와 결합할 때 ‘上1’과 ‘著’을 비교해보자.

(153) 他可以跳上一整天的舞。

그는 하루종일 춤을 출 수 있다.

(153') *他可以跳著一整天的舞。

(154) 走上一小時的路。

한 시간동안 길을 걸었다.

(154') *走著一小時的路。

(155) 穿上二十年。

입은 지 20년이나 됐다.

(155') *穿著二十年。

(156) 把管子接上六小時後恢復功能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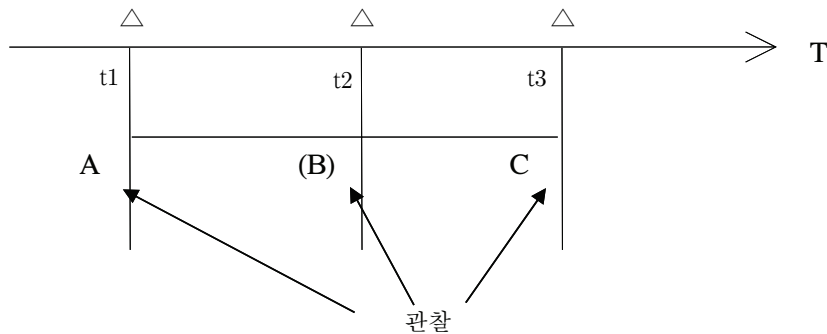
호스를 연결시킨 지 6시간 후에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156') *把管子接著六小時後恢復功能了。

예문(153-156)는 동사가 ‘上1-1’, ‘上1-2’, ‘上1-3’, ‘上1-4’와 결합하는 문장에

20) 戴耀晶(1997: 4) 참고.

시간사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153b-156b)와 같이 ‘著’가 시간사와 같이 사용되면 비문이 된다. ‘著’를 사용하여 전체적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一整天’, ‘一小時’, ‘二十年’, ‘六小時’는 사건의 시간 구간을 나타내어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을 분해할 수 없다는 전체적인 특징을 부여하므로 ‘著’의 미완료상과는 서로 모순된다.²¹⁾ 반면(153a-156a)에서 ‘上’은 시간부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上’은 앞에 오는 동사 행위의 시작, 지속과 완료부분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적 의미를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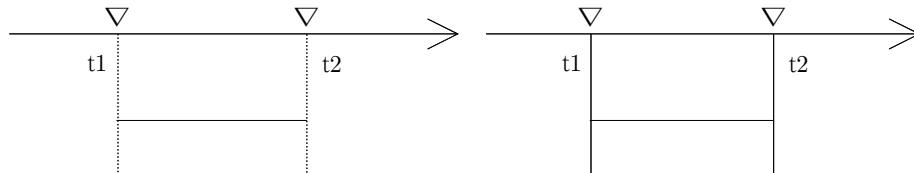
[그림 7] 시간사를 추가하는 경우에 ‘上1’의 지속상

예문(153a-156a)에서 ‘跳舞’, ‘走路’, ‘穿衣’, ‘接管子’라는 사건이 시작된 것은 A부분으로 표시하고, 사건 안에 일어난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B부분으로 표시한다. 예문에서는 시간부사로 인해 C부분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上1-1’과 결합하는 동사 ‘跳’, ‘登’, ‘上1-2’와 결합하는 동사 ‘走’, ‘騎’, ‘開’, ‘上1-3’과 결합하는 동사 ‘穿’, ‘關’, ‘換’, 그리고 ‘上1-4’와 결합하는 동사 ‘接’, ‘放’ 모두 지속상 표지 ‘著’와 같이 사용하면 동작 행위가 지속되는 부분만 표시할 수 있다. 이를 상(aspect)적 개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 사건의 시작 부분은 t1이고 완료 부분은 t2인 경우에 ‘著’는 t1부터 t2까지의 거리는 관찰 범위에 포함시키지만, t1과 t2에 대한 관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上’은 t1부터 t2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t1과 t2

21) 胡裕樹, 范曉(1995: 91)

에 대해서도 관찰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著’와 ‘上’을 시간 축에서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8] 시간 축에서 ‘著’의 관찰

[그림 9] 시간 축에서 ‘上’의 관찰

[그림9]에서 세로로 된 실선은 관찰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표시하며, 세로로 된 점선은 관찰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림9]와 같이 ‘上’은 사건의 시작부분(t1)과 완료부분(t2)을 관찰 범위에 포함시켜서 사건이 정확한 시작과 종료의 시간을 표시하는 시간부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著’는 [그림8]과 같이 시작부분(t1)과 완료부분(t2) 사이의 지속부분만 관찰 범위에 포함시키므로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같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1.2 ‘上2’의 지속상

다음은 동사와 결합하는 ‘上2’와 ‘著’를 비교하여 상적 의미에서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上2’와 결합하는 동사들이 ‘著’와 같이 사용할 때 시간 구간을 가리키는 시간부사와 결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157) 他在北京住上幾個月了。

그는 북경에서 몇 개월이나 살았다.

(157') *他在北京住著幾個月了。

(158) 這啤酒買上好一陣子了。

이 맥주는 산 지 한참 되었다.

(158') *這啤酒買著好一陣子了。

(159) 這車開上一個月了。

이 차는 운전하게 된 지 한 달이나 되었다.

(159') *這車開著一個月了。

(160) 染上病有一段時間了。

병에 걸린 지 한참 되었다.

(160') *染著病有一段時間了。

(161) 說上一兩句話。

한 두 마디를 얘기한다.

(161') *說著一兩句話。

(162) 用上一兩年。

1, 2년이나 사용한다.

(162') *用著一兩年。

예문(157-159)의 동사는 보어 ‘上2-1’과 결합하는 경우이고, 예문(160-162)의 동사는 보어 ‘上2-2’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예문(157-162)도 [그림9]로 설명할 수 있다. 시간부사로 인해 ‘上2’는 사건의 시작부분(t1)과 완료부분(t2)을 관찰 범위에 포함시켜서 사건의 정확한 시작과 종료의 시간을 표시하는 시간부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157'-162')에서 나타난 ‘住’, ‘買’, ‘開’, ‘染’, ‘說’, ‘用’ 등의 동사는 지속상 ‘著’와 같이 사용하면 동작 행위가 지속되는 부분만 표시할 수 있다. 예문(157'-162')도 [그림8]로 설명할 수 있다. ‘著’는 시작부분(t1)과 완료부분(t2) 사이의 지속부분만 관찰 범위에 포함시켜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4.1.3 ‘上3’의 지속상

다음은 동사와 결합하는 ‘上3’과 동사와 결합하는 ‘著’를 비교하여 상적 의미에서 차이점을 보고자 한다.

‘上3’과 결합하는 동사들이 ‘著’와 같이 사용할 때 시간구간을 가리키는 시간부사와 결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163) 他愛上她好幾個月了。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된 지 몇 개월이나 되었다.

(163') *他愛著好幾個月了。

(164) 這頭羊養上一年了。

이 양을 키우게 된 지 1년이나 되었다.

(164') *這頭羊養著一年了。

(165) 雨絲飄上一整天。

비가 하루 종일이나 온다.

(165') *雨絲飄著一整天。

(166) 看上一整天。

하루 종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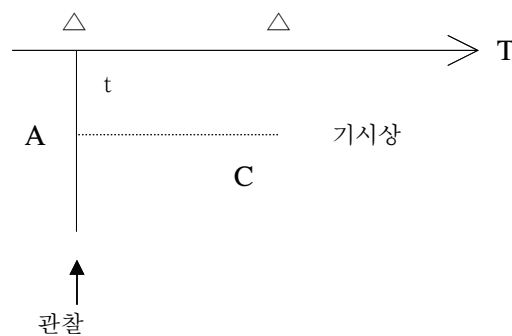
(166') *看著一整天。

예문(163-166)의 ‘愛’, ‘養’, ‘飄’, ‘看’ 등의 동사는 지속상 ‘著’와 같이 사용하면 동작 행위가 지속되는 부분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上3’은 사건의 정확한 시작과 종료의 시간을 표시하는 시간부사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上3’도 ‘上1’, ‘上2’처럼 사건의 지속부분뿐만 아니라, 사건의 시작과 완료부분에 대해서도 관찰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정확한 시작과 종료의 시간을 표시하는 시간부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上1’, ‘上2’, ‘上3’과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著’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上’과 ‘著’가 사건의 지속부분을 관찰하게 된 것은 ‘上’과 ‘著’가 모두 지속성을 지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上’과 ‘著’의 공통점이다. 한편 ‘V上’ 구문은 모두 사건의 시작과 지속부분에 대해 관찰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V上’ 구문은 시간부사와 같이 나타날 수 있지만, 동사 뒤에 ‘著’가 있는 문장은 시간부사와 같이 나타날 수 없다. 이는 시간부사로 인해 ‘V上’ 구문의 사건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부사가 없는 경우에는 ‘V上’ 구문에서 나타내는 사건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V上’ 구문을 상 표지 ‘起來’, ‘了’와도 같이 비교해 보고자 한다.

4.2 ‘上’과 기시상(起始相)

戴耀晶(1997: 97)에 따르면 기시상(起始相, inchoative aspect)은 미완료상의 하위범주이며 중국어에서 기시상은 상 표지 ‘起來’에 의해 표현된다. ‘起來’의 기시상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10] ‘起來’의 기시상

[그림10]과 같이 사건의 A부분을 관찰하는 것은 기시상인 사건의 시작의 의미를 나타낸다. 呂叔湘(1999: 473)은 동사로서의 ‘上’은 ‘동작이 시작되어

계속됨을 나타내는데 특히 시작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劉月華(1998: 105)에 따르면 ‘上’과 ‘起來’는 모두 상태의미를 표시하며 새로운 상태에 진입한 것을 표시한다. 胡裕樹, 范曉(1995: 115)는 동사 뒤에 ‘起來’가 붙어서 나타내는 시작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上’은 ‘起來’와 같이 시작의 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上’과 마찬가지로 시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起來’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胡裕樹, 范曉가 ‘起來’와 결합하는 것은 지속이 가능한 동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본고가 ‘上’과 결합하는 동사 역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4.2.1 ‘上1’의 기시상

먼저 보어 ‘上1’과 시작의 의미를 지닌 보어 ‘起來’가 상적 의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67) a. 換上一件衣服。
 옷을 갈아입었다.
 b. 換起衣服來。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167)의 동사 ‘換’은 ‘上’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起來’와 같이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즉 ‘上’과 ‘起來’는 모두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陳明舒(2005: 162)에 따르면 ‘上’과 같이 사용하는 문장은 어느 부분에도 종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상으로는 종점이 ‘身上’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여 옷이 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起來’와 같이 사용하는 문장은 종점을 동반하지 않는다. 예문 (167b)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옷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계속해서 다음의 예문을 보자.

(168) 把名字填上。

이름을 적어 놓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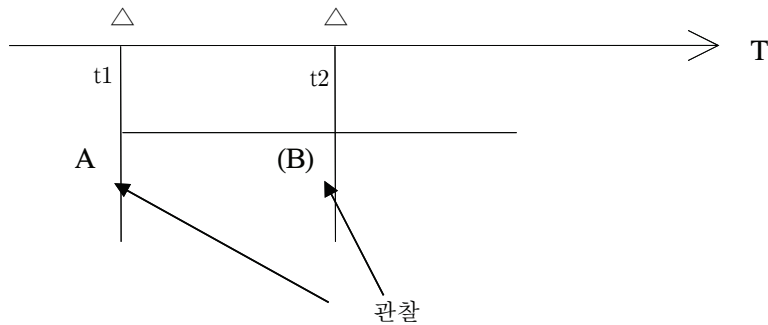
(168') *把名字填起來。

(169) 他砰地一聲把門摔上。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169') *他砰地一聲把門摔起來。

예문(168'-169')의 ‘起來’는 ‘上1’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起來’는 기시상으로서 화자가 사건의 시작부분만 관찰할 수 있으며, 사건의 지속과 결과 부분은 관찰할 수 없다. 하지만 ‘上1’은 동작 행위의 시작과 지속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 예문(168)은 동사 ‘填’이라는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낸다. ‘上’은 ‘填’이라는 사건에서 시작, 지속부분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예문 (168)은 ‘上’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起來’는 사건의 시작부분만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168')의 ‘填起來’는 비문이 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11] ‘上’의 기시상

[그림11]과 같이 ‘上’은 사건의 시작부분(t1)과 지속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起來’는 [그림10]과 같이 시작부분(t1)만 관찰한다. 이와 같이 사건의 A부분을 관찰하는 것은 사건의 시작의 의미를 나타내고 기시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려준다.

4.2.2 ‘上2’의 기시상

다음은 ‘上2’와 보어 ‘起來’가 지닌 상적 의미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上2’가 ‘起來’와 바꿔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 (170) a. 考上大學。
대학에 합격했다.
a'. *考起大學來。
b. 哪個專業考起來簡單一點啊?
어떤 과목이 시험 볼 때 더 쉬울까?

- (171) a. 住上好房子。
좋은 집에 살다.
a'. *住起好房子來。
b. 這房子住起來真舒服。
이 집은 살기에 편하다.

- (172) a. 也算上我一份吧。
내 몫도 해줘라.
a'. *也算起我一份來吧。
b. 算起來還真是挺複雜的。
계산하면 매우 복잡하다.

위의 예문(170-172)의 a와 b의 동사 ‘考’, ‘住’, ‘算’은 모두 ‘上2’, ‘起來’와 결합할 수 있지만 시간성에서 보면 ‘上2’와 ‘起來’를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장에서 말했듯이 ‘上2’는 시간과 관계되는 개념이며 일정한 정도에 도달하여 그 수준에 계속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문(170b), (171b), (172b)는 ‘起來’와 결합하는 문장들이다. 그러나 이때 ‘起來’는 모두 ‘어떤 면에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평가’의 의미를

나타낸다.²²⁾ 예문(170b)는 시험을 치는 것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시험을 치는 면에서 볼 때 ‘簡單’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예문(171b)는 이 집에 대한 평가인데, 이 집에서 사는 면에서 볼 때는 ‘真舒服’이라는 평가를 한 것이다. 예문(172b)는 무엇을 계산하기에 ‘挺複雜的’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起來’는 모두 앞에 온 동사의 구체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가 표시하는 방면에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것이다. 劉月華도 “이러한 ‘起來’가 나온 문장의 동작이나 상태는 일반적으로 시간성이 없거나 시간성이 강하지 않으며 과거, 현재, 미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²³⁾

따라서 ‘上2’는 시간성이 있는 개념이지만 ‘起來’는 시간성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考上大學’, ‘住上好房子’, ‘算上我一份’라는 문장은 ‘考起來大學’, ‘住起來好房子’, ‘算起來我一份’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上2’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왜 ‘起來’와 같이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된다. ‘考’, ‘住’, ‘算’라는 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 ‘上2’는 사건에서 시작, 지속과 완료부분 즉,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예문(170-172)에서 ‘上2’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考’, ‘住’, ‘算’과 같은 동사와 결합하는 ‘起來’는 시간성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상 표지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上’의 시간성이 강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보어‘上’을 사용하는 문장을 ‘起來’로 대체하여 사용하려면 ‘起來’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4.2.3 ‘上3’의 기시상

다음은 ‘上3’과 시작의 의미를 지닌 보어 ‘起來’가 상적 의미에서 어떤 차

22) 劉月華(1998: 371)에 따르면 ‘起來’는 특수용법에서 ‘用於從某方面說明、評論人或事物。動詞或形容詞前一般要出現表示所評論說明的人或事物的名詞’라는 의미이다. 그는 여기서 ‘吃起來’, ‘跑起來’, ‘說起來’ 등 예문을 제시하였다.

23) 劉月華(1998: 371)에 따르면 ‘此類句中的動作, 狀態一般沒有時間性或時間性不強, 可表示過去, 現在, 將來.’

이가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173) a. 養上魚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다.

b. 養起魚來²⁴⁾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다.

(174) a. 飄上雪花

밖에 눈꽃이 내리기 시작했다.

b. 飄起雪花來

밖에 눈꽃이 내리기 시작했다.

(175) a. 看上書

책을 보기 시작했다.

b. 看起書來

책을 보기 시작했다.

예문(173-175)에서 ‘上3’은 ‘起來’로 변환할 수 있다. 劉月華(1998: 105)는 보어 ‘上’과 ‘起來’의 기능 중에 ‘정태로부터 동태에 진입함’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起來’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사용해서 어떤 새로운 상태로 진입한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동사 뒤에 사용하면 새로운 동작이 진행하기 시작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陳明舒(2005: 75)는 이에 대해 ‘上3’은 ‘대상 범주에 진입하여 그 범주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上3’은 ‘시작과 지속’이라는 의미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고 하였다. 예문(172-174)은 ‘上3’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起來’와 같이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로써 ‘上3’과 ‘起來’는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上3’은 앞서 제시한 [그림11]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上3’과 ‘起來’가 상적 의미에

24) 戴耀晶(1997: 99)에 따르면 ‘起來’는 ‘起’와 ‘來’로 합성된 언어 형식이다. 동사가 뒤에 빈어가 올 때는 ‘起來’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起’와 ‘來’는 사건의 기시상 의미를 지닌 것이 변하지 않다.

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시간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보자.

(176) 養上一段時間了。

키운 지 한 동안이나 됐다.

(176') *養起魚來一段時間了。

(177) 聊上一個小時。

한 시간이나 이야기한다.

(177') *聊起一個小時來。

(178) 看上一個月。

한 달이나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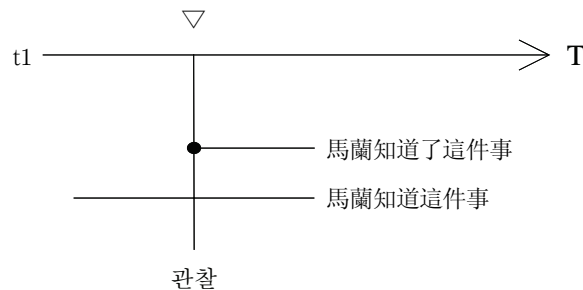
(178') *看起一個月來。

4.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上’은 시간사와 결합할 때 시간사로 인해 한 사건의 종료부분에 대해 관찰하게 된다. 그러나 ‘起來’는 시작과 지속이라는 의미만 지니기 때문에 시간의 구간을 표시하는 시간사와 결합하기 힘들다. 이러한 시간사는 한 사건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는지에 대해 시간을 정하여 종료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보어 ‘上’은 언제나 종점이 존재하지만, 보어 ‘起來’는 종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4.3 ‘上’과 완료상(完整相)

중국어에서 완료상은 상(相) 표지 ‘了’에 의해 표현된다. 이에 본고는 의미 분석의 측면에서 동사 뒤에 나오는 ‘上’과 완료상 표지 ‘了’를 살펴보고자 한다. 胡裕樹, 范曉(1995: 43)는 완료상 ‘了’의 3가지 의미 특징을 동태성, 완전성, 현실성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보어 ‘上’이 동사 뒤에 사용될 때 ‘了’로 대체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了’는 동태성(動態性)이라는 의미특징을 지닌다. 동태는 정태와 상대적인 개념이다. 동태적 문장은 사건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 반해, 정태적 문장은 변화가 없는 일정한 사건을 나타낸다.²⁵⁾ 胡裕樹, 范曉는“‘了’를 수반한 문장은 사건의 시작점(開始點)의 동태를 나타내며 ‘了’를 수반하지 않은 문장은 시작점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사건이 정태적 지속 단계에 있음을 설명한다”²⁶⁾고 주장했다. 시간 축에서 ‘了’의 시작점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2] ‘了’의 시작점

[그림12]는 ‘馬蘭知道這件事’라는 문장이 정태적인 것을 하나의 직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知道’라는 동사는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태적 동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상 표지 ‘了’를 넣는다면 문장의 정태성에 변화가 생겨 동태적 문장으로 바뀐다. ‘了’가 ‘不知道’에서 ‘知道’의 상태로 변화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림12]의 둥근 점은 동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了’가 사건의 시작부분에 대한 관찰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劉月華(1998: 105)는 “보어 ‘上’의 기능 중 하나는 정태로부터 동태에 진입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고는 이 부분에서는 ‘上’과 ‘了’가 동태성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한편 胡裕樹, 范曉(1995)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

25) 胡裕樹·范曉(1995: 44)에 의하면 동태(動態)는 정태(靜態)와 상대적이다. 양자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동태가 변화를 반영하여 동태적 문장은 사건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 반해, 정태는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며 정태적 문장은 변화가 없는 일정한 사건을 나타내는 데 있다.

26) 胡裕樹, 范曉(1995: 45) ‘帶“了”的句子指明了事件的起始點動態, 不帶“了”的句子沒有指明起始點, 僅僅說明事件處於靜態持續階段’

‘了’와 결합한 후 나타나는 동태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⁷⁾ 본고는 이를 통하여 ‘上’과 결합하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 ‘上’과 결합한 후에 나타나는 동태도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上’와 결합하는 동사가 ‘上’과 결합할 때 나타나는 동태가 시간 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고자 한다.

먼저 동태성이라는 각도에서 다음과 같이 ‘上’을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3.1 ‘上’의 전체과정의 동태

첫째, 전체 과정의 동태인 경우이다. 본고는 앞서 2장에서 ‘上1-1’, ‘上1-2’와 결합하는 동사의 의미특징은 모두 [+동작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²⁸⁾ 다음의 예문을 보자.

먼저, ‘上1-1’, ‘上1-2’와 결합하는 동사의 동태성을 보자.

(179) 跳上三天三夜。

3박 3일동안 춤을 추었다.

(180) 穿著匡威帆布鞋走上一百年。

컨버스 신발을 신고 100년 동안 걸어가자.

예문(179), (180)은 전체적인 과정이 동태문(動態句)으로서, 변화는 사건과 함께 시작되고 끝난다. 이때 ‘跳’, ‘走’의 변화는 ‘三天三夜’, ‘一百年’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된다. ‘上1-1’, ‘上1-2’와 결합하는 동사는 [+동작성]이라는 의

27) 胡裕樹, 范曉(1955: 46)는 “정태동사는 ‘了’와 결합한 경우는 변화가 개시점(開始點)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동작동사는 ‘了’와 결합한 경우 변화가 동작과 함께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다. 결과동사는 ‘了’와 결합한 경우는 변화가 종결점(終結點)을 나타내는 것이다.

28) 본고 2장 [표1]

미자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동사가 ‘上’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변화는 동작과 함께 시작되고 끝나는데, 동작이 시작되면 변화 역시 시작되고 동작이 멈추면 변화 또한 멈추므로 이를 전체 과정의 동태(full dynamics)²⁹⁾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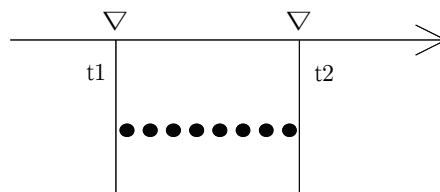
다음은 ‘上3-1’, ‘上3-2’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이때 [+동작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닌 동태적 동사의 동태성은 전체 과정의 동태이다.

(181) 看上一整天。
하루 동안 보았다.

(182) 鬧上三個小時。
3시간 동안 떠들었다.

예문(181-182)와 같이 ‘上3-1’과 결합하는 동사 ‘養’, ‘飄’, ‘看’, ‘吃’, 그리고 ‘上3-2’와 결합하는 동사 ‘哆嗦’, ‘嚷嚷’, ‘議論’, ‘吵鬧’는 [+동작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닌 것이다. 이런 동사들은 추상적인 동태적 동사이다. 예문(181), (182)에서 나타내는 것은 모두 동태적 사건이다. 즉 문장의 전체적인 과정이 동태문(動態句)으로, 변화는 사건과 함께 시작되고 끝나며 ‘看’, ‘鬧’의 변화는 ‘一整天’, ‘三個小時’라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上1-1’, ‘上1-2’와 결합하는 동사와 ‘上3-1’, ‘上3-2’와 결합하여 [+동작성]이라는 자질을 지닌 동사의 동태는 시간 축에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13] 전체 과정의 동태

29) 胡裕樹, 范曉(1955: 46)는 動作動詞(동작동사)가 ‘了’와 결합한 경우는 전체 과정이 동태라고 하였는데, 본고는 동작성을 지닌 동사가 ‘上’과 결합한 경우를 전체 과정이 동태라고 본 것이다.

[그림13]의 시간 축에서 t1부터 t2까지는 한 사건을 나타낸다. t1부터 t2까지의 거리는 예문(178-179)의 경우 ‘三天三夜’, ‘一百年’이고, 예문(181-182)의 경우는 ‘一整天’, ‘三個小時’이다. [그림13]에서 점은 동태를 가리키는 것이며 t1부터 t2까지 동태적으로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태사건을 표시하는 [그림13]은 ‘上1-1’, ‘上1-2’, ‘上3-1’, ‘上3-2’로 인해 동사의 동작 행위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上1-1’, ‘上1-2’, ‘上3-1’, ‘上3-2’와 결합하는 동사가 [+동작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니기 때문에 문장에서 나타난 사건의 동태는 전체 과정의 동태가 된 것이다.

4.3.2 ‘上’의 종결점의 동태

다음은 ‘上1-3’, ‘上1-4’와 결합하는 동사의 동태성을 보자. ‘上1-3’과 결합하는 동사는 [+첨가], [+부착], [+고정]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上1-4’와 결합하는 동사의 의미특징은 [+결합]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닌 것을 얘기하였다.³⁰⁾ 이런 동사들은 동작의 결과를 가리키는데, 사물이 어떤 위치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의미상 결과동사에 가깝다.³¹⁾ 먼저 다음의 예문을 보자.

(183) 真正的效果如何, 穿上一天後才能得出真實的結論。

효과가 어떤지 하루 동안 입고 나서야 진정한 결론을 낼 수 있다.

(184) 單詞接龍遊戲, 看看咱們能不能接上一整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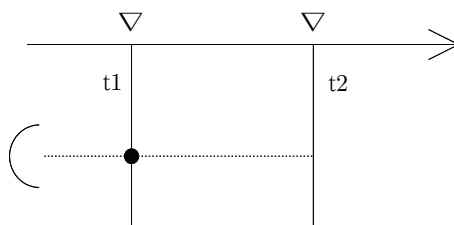
끝말잇기 게임을 우리가 1년 동안 할 수 있을지 보자.

예문(183), (184)는 모두 동태적 사건이다. 문장이 ‘上’과 결합하면 변화의 종결점(終結點)을 가리켜 문장 전체는 종결점을 포함한 동태적 사건을 나타내게 된다. 변화가 종결점에서 발생함을 나타내며 일단 ‘穿’, ‘接’라는 동작이

30) 본고 2장 [표1]

31) 胡裕樹, 范曉(1955: 48)에 의하면 ‘穿’, ‘拿’, ‘掛’, ‘吊’ 등 동사는 위치동사(位置動詞)인데 결과동사와에 가깝다.

일어나면 동태는 종결되고, ‘一天’, ‘一整年’은 동태 종결 후의 시간을 가리킨다. 이처럼 ‘上1-3’, ‘上1-4’와 결합하는 동사는 어떤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동사가 ‘上’과 결합하는 경우는 변화의 종결점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결과이므로 종결점의 동태(*terminal dynamics*)라고 할 수 있다.³²⁾ 한편 ‘上1-3’, ‘上1-4’와 결합하는 [+부착], [+첨가], [+고정], 혹은 [+결합]이라는 자질을 지닌 동사의 동태는 시간 축에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14] 종결점의 동태

[그림14]는 시간 축에서 t1부터 t2까지가 한 사건을 나타낸다. t1부터 t2까지의 거리는 예문(183), (184)의 ‘一天’, ‘一整年’에 해당한다. 점은 동태를 가리키는 것이며 t1부터 t2까지 동태적으로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1선 우측의 점선은 동작 종결 후의 시간을 가리키며 t1선 좌측의 점선은 동작이 종결점에 이르기 전에 아마도 동태적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동태사건을 표시하는 [그림14]는 ‘上1-3’, ‘上1-4’로 인해 동사의 동작 행위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上1-3’, ‘上1-4’와 결합하는 동사가 [+부착]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니기 때문에 문장에서 나타난 사건의 동태는 종결점의 동태가 된다.

32) 胡裕樹, 范曉(1955: 46)는 結果動詞(결과동사)가 ‘了’와 결합한 경우는 종결점의 동태라고 하였는데, 본고는 [+부착], [+결합]을 지닌 동사가 ‘上’과 결합한 경우를 종결점의 동태라고 본 것이다.

4.3.3 ‘上’의 시작점의 동태

다음은 ‘上2-1’, ‘上2-2’와 결합하는 동사의 동태성을 살펴보자. ‘上2-1’, ‘上2-2’와 결합하는 동사는 [+심리적], [+추상적]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닌다.³³⁾ 이런 동사들은 정태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上’과 결합한 후에 문장의 정태성에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자. 다음의 예문을 보자.

(185) 亞洲股市升上約一個月的高位。

아시아 주식이 한 달이나 최고치에 올라가 있다.

(186) 忙上一陣子。

한 동안 바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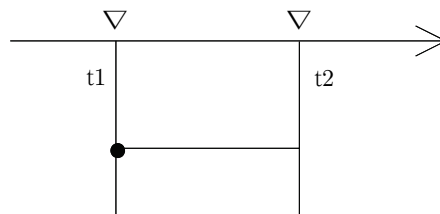
예문(185-186)은 모두 ‘上’으로 인해 동태적 사건이 된다. 예문(185)은 시작점의 동태이다. 즉 ‘升’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으며 의미상 정태동사에 가깝다. 이러한 동사에는 ‘登’, ‘睡’, ‘住’ 등이 있다. ‘上’과 결합한 후 변화의 시작점을 나타내며 각각 문장의 시작점을 포함한 동태적 사건을 나타낸다. ‘上2-1’, ‘上2-2’와 결합하는 동사는 추상적이거나 심리적인 동사이다. 즉 정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다.

‘上3-1’과 결합하는 동사 ‘愛’, ‘恨’, ‘喜歡’, 그리고 ‘上3-2’와 결합하는 동사 ‘忙’, ‘熱’는 [-동작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닌다. 이런 동사들은 심리적이거나 추상적인 정태적 동사이다. 예문(186)은 이런 동사에 속한다. ‘忙’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으며 의미상 정태동사에 가깝다. ‘上’과 결합한 후 변화의 시작점을 나타내며 문장의 시작점을 포함한 동태적 사건을 나타낸다. 이런 동사는 ‘上3-1’, ‘上3-2’와 결합하여 [-동작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태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동사들이 ‘上’과 결합하는 경우 발생하는 시작점을 나타내며 그 이후

33) 본고의 [표3] 참조

에는 계속 정태를 유지하여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를 시작점의 동태(ingressive dynamics)로 구분하고자 한다.³⁴⁾ ‘上2-1’, ‘上2-2’와 결합하는 [+추상적] 혹은 [+심리적]이라는 자질을 지닌 동사, 그리고 ‘上3-1’, ‘上3-2’와 결합하여 [-동작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닌 동사의 동태는 시간 축에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15] 시작점의 동태

[그림15]는 시간 축에서 t1부터 t2까지가 한 사건을 나타낸다. t1부터 t2까지의 거리는 예문(184)에서 ‘一個月’이고, 예문(185)에서 ‘一陣子’에 해당한다. 점은 동태를, 실선은 정태를 가리킨다.

‘上2-1’, ‘上2-2’와 결합하는 동사는 [+추상적], [+심리적]이라는 정태적 의미자질을 지닌다. 동태사건을 표시하는 [그림15]는 ‘上2-1’, ‘上2-2’로 인해 동사의 동작이 정태에서 동태로 변화하여 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上3-1’, ‘上3-2’와 결합하여 [-동작성]을 지닌 동사도 정태적 의미자질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동태사건을 표시하는 [그림15]는 ‘上3-1’, ‘上3-2’로 인해 동사의 동작이 정태에서 동태로 변화하여 행위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4) 胡裕樹, 范曉(1955: 46)는 靜態動詞(정태동사)가 ‘了’와 결합한 경우는 개시점의 동태라고 하였는데, 본고는 [+심리적], [+추상적]을 지닌 동사가 ‘上’과 결합한 경우를 개시점의 동태라고 본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V上’ 구조 중에서 ‘上’과 결합하는 동사의 특성을 통하여 ‘上’의 시간성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지속성 동사는 ‘上’과 결합할 수 있지만, 결합이 불가능한 동사도 존재한다. 이에 본고는 일부 지속성 동사가 ‘上’과 결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동사와 ‘上’의 결합관계를 분석하였다. 본고는 나아가 시간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上’을 ‘著’, ‘起來’, ‘了’, 시간사의 상적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비교하므로 ‘上’의 시간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장에서 陳明舒가 분류하는 ‘上’과 결합하는 동사의 의미특징을 기준으로 ‘上’과 결합하는 동사가 상(aspect)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陳明舒는 ‘上’을 모두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세 가지의 ‘上’은 모두 ‘著’와 결합할 수 있으며 시간 부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上’이 지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세 가지의 ‘上’과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어 ‘上1’은 공간은유의 보어 ‘上’이다. 보어 ‘上1-1’과 결합하는 동사는 [+동작성], [+상향이동]이라는 의미자질을 지닌다. 보어 ‘上1-2’와 결합하는 동사는 [+동작성], [-상향이동]이라는 의미 자질을 지닌다. 보어 ‘上1-3’과 결합하는 동사는 [+첨가], [+부착], [+고정이라는 자질을 지닌다. 보어 ‘上1-4’와 결합하는 동사는 [+결합]이라는 자질을 지닌다.

둘째, 보어 ‘上2’는 공간은유의 보어 ‘上’이다. ‘上2-1’과 결합하는 동사는 [-구체적 행위], [-수직 고도]라는 자질 지닌다. 이러한 동사는 구체적 동작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上2-2’와 결합하는 동사는 [+추상적 행위]이라는 자질을 지닌다.

셋째, 보어 ‘上3’은 시간은유의 보어 ‘上’이다. ‘上3’과 결합하는 동사는 상태 동사인테 문장에서 빈어를 수반하여 같이 나타나면 ‘上3-1’로, 문장에서 빈어를 수반하지 않으면 ‘上3-2’로 분류한다.

이 세 가지 ‘上’과 결합하는 동사는 모두 ‘著’와도 결합할 수 있다. 이는 ‘上’과 결합하는 동사와 보어 ‘上’은 모두 지속성을 지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지속성 동사에 속하지만 ‘上’과 결합할 수 없는 동사가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고는 ‘上’과 결합하지 못하는 동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3장에서 ‘上’과 결합할 수 없는 동사의 의미특징을 분류하였다. ‘上’과 결합할 수 없는 동사는 크게 방향성동사, 순간동사, 유표지 상태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방향성 동사이다. 방향성 동사는 王媛(2006)이 분류한 방향의 의미를 지닌 1음절 동작동사에 속하는 것이다.

둘째, 순간동사이다. 순간동사는, 李路(2009)에 의하면 ‘著’와 결합하는 동사이며, 시간사와 결합하지 못하고 ‘三下’라는 동량사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이다.

셋째, 유표지 상태동사이다. 유표지 상태동사는 胡裕樹, 范曉(1995)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본고는 이를 동사가 현대중국어의 상 표지인 ‘起來’, ‘過’, ‘了’, 그리고 시간사와의 결합 여부를 통하여 이들이 지니는 동사의 시간성의 강약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논의를 통하여 ‘上’과 결합하지 못하는 동사는 상대적으로 시간성이 약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지닌 보어 ‘上’과 결합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上’의 시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속상, 기시상, 완료상을 나타내는 상 표지와 결합관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上’과 ‘著’는 모두 지속성을 지니지만, ‘著’는 한 사건의 지속부분만 관찰하고, ‘上’은 한 사건의 지속부분뿐만 아니라, 시작과 종료부분도 관찰하게 된다.

둘째, ‘上’과 ‘起來’는 모두 사건의 시작부분을 관찰한다. 그러나 ‘上’은 한 사건의 지속부분도 관찰한다는 것이 ‘起來’와 다른 점이다.

셋째, ‘上’은 동사에 따라 문장의 동태성이 달라진다. ‘上’이 [+동작성]의 의미자질을 지닌 동사와 결합하면 전체 과정은 동태적 사건이 되고, [+결과성]의 의미자질을 지닌 동사와 결합하면 종결점의 동태적 사건이 되며, [+추상

적] 동사와 결합하면 시작점의 동태적 사건이 된다. 즉, 동사에 따라 ‘上’이
한 사건에서 어떻게 지속하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논문

- 박민아, 2010, 〈현대중국어의 相 결합모형 연구〉, 석사학위 논문.
- 신경미, 2010, 〈현대중국어의 기시상(起始相) 표지 ‘起來2’〉,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은수, 2003, 〈현대중국어 상 표지 연구 — ‘了’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盧英順, 2000, 〈現代漢語中的“延續體”〉, 安徽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28卷 第3期.
- 房玉清, 1992, 〈“起來”的分布和語義特徵〉, 世界漢語教學 第1期(總第19期).
- 王 媛, 2006, 〈從“方向”的角度對現代漢語單音節動作動詞分類〉, 安陽工學院報, 2月 第1期
- 阿不都熱依木·熱合曼, 2010, 〈維吾爾語動詞的體及其時間指向功能〉, 民族語文, 第4期.
- 張燕春, 1995, 〈‘V+上/下’中‘上’/‘下’的意義和V的分類〉, 贛南師範學院學報, 第4期.
- 蔣 華, 2003, 〈趨向動詞‘上’語法化初探〉, 語言教學與研究, 第3期.
- 陳明舒, 2005, 〈現代中國補語 ‘上·下·起來’ 의미기능 研究〉.
- 黃玉花, 2008, 〈漢語和韓國語“V上/오르다”類比較研究〉, 中國語文論叢, Vol.39, 中國語文研究會.
- 黃玉花, 2007, 〈韓國留學生漢語趨向補語習得特點及偏誤分析〉, 漢語學習.
- 李鐵根, 2002, 〈“了”、“著”、“過”與漢語時制的表達〉, 語言研究, 第3期(總第48期).
- 李 路, 2009, 〈現代漢語瞬間動詞及相關問題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 단행본

- 허성도, 2007, 《현대중국어 어법의 이해》, 서울, 사람과 책.
龔千炎, 1995, 《漢語的時相時制時態》, 北京, 商務印書館.
戴耀晶, 1997, 《現代漢語時體系統研究》, 浙江教育出版社.
馬慶株, 1992, 《漢語動詞和動詞性結構》,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范 曉, 2009, 《漢語句子的多角度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劉月華, 1998, 《趨向補語通識》,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05, 《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胡裕樹·潘文娛 외, 1983, 《實用現代漢語語法》,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胡裕樹·范曉, 1995, 《動詞研究》, 河南大學出版社.
沈家煊, 2009, 《認知與漢語語法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3. 사전 및 기타 참고자료

- 呂叔湘, 1999,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北京大學 漢語語言學研究中心 現代漢語語料庫: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xiandai
臺灣 中央研究院 現代漢語平衡語料庫:
<http://db1x.sinica.edu.tw/cgi-bin/kiwi/mkiwi/scorp.pl>

【中文摘要】

現代標準漢語「V上」句中動詞的特徵
及「上」的時間性

首爾大學 中文系

陳思好

在使用現代漢語中的「V上」時，補語「上」之前到底要跟哪一種動詞一起使用？這個問題對於韓國學生來說是很難掌握的。本論文利用台灣中央研究院現代漢語標記語料庫考察的結果發現，「V上」的動詞大部分皆可與持續體標記「著」結合。因此本論文從語料庫中找出所有可以加上體標記「著」的動詞，再分成可加及不可加「上」的兩大類動詞，並分析這兩類動詞的語義。本論文還發現，在使用「V上」時，持續體標記「著」有時候可以代替補語「上」來使用。因為體標記跟漢語的時間性有關，因此本文試圖用體(aspect)標記的概念來說明補語「上」的時間性。本論文的研究結果如下：

一、根據陳明舒的論點，可加「上」的動詞可以分成三類：直接空間的「上1」、空間隱喻的「上2」、時間隱喻的「上3」。這三類「上」在空間中表示「存在」，且這種空間上的存在性都可以看動作的持續。本論文分析了陳明舒所分類的「上」及其結合的動詞，結果發現與這三類「上」結合的動詞皆可加上「著」，證明這些動詞皆帶有[+持續]這項語義特徵。而陳明舒所提出的「上」為動作的持續的觀點，本論文認為這也可以看做是「上」帶有[+持續]這項語義特徵，因此與「上」結合的動詞其時間性是很強的。

二、不可加「上」的動詞大部分不可以與時間上帶有持續意義的「著」結合，只有在「著」帶有「動作開始並結束，且不斷反覆」的意義時例外。不可加「上」的動詞可分成三大類：方向性動詞、瞬間動詞、有標記狀態動詞。本論文發現這三類動

詞中，方向性動詞的時間性最弱，瞬間動詞次之，有標記狀態動詞最強。而時間性愈弱的動詞愈難與「上」結合，時間性愈強的動詞愈容易與「上」結合。

三、在「V上」句中可加「上」的動詞可以加上持續體「著」、起始體「起來」、完成體「了」。本論文把「上」套用到體(aspect)的概念中並跟這三種體做比較，以便找出「上」跟動詞結合時的時間性。本研究的結果發現，「上」跟持續體「著」比較時，持續體「著」在時間軸上只觀察事件的持續部分，而「上」在時間軸上除了事件的持續部分外，也觀察到事件的開始部分，所以有時動詞加「著」時可以用「上」代替；跟起始體「起來」比較時，起始體「起來」在時間軸上只觀察事件的開始部分，而「上」在時間軸上除了事件的開始部分外，也觀察到事件的持續部分，所以有時動詞加「起來」時可以用「上」代替；完成體「了」跟「上」都可以表示「動作從靜態進入動態」但是隨著與「上」結合的動詞的不同，「上」在事件中的動態性也不同：與「上1-1」、「上1-2」結合的動詞有[+動作性]語義特徵，動詞的動作在事件中為整體性的動態，有[+動作性]語義特徵的「上3-1」、「上3-2」其結合的動詞也如此；與「上1-3」、「上1-4」結合的動詞有[+添加]、[+固定]、[+附著]語義特徵，這類動詞表示出動作的結果，動詞的動作在事件中為終結點的動態。與「上2-1」、「上2-2」結合的動詞有[+心理性]、[+抽象性]語義特徵，這類動詞帶有靜態性，但是與「上」結合時句子的靜態性發生變化轉變成動態。動詞的動作在事件中為起始點的動態，有[-動作性]語義特徵的「上3-1」、「上3-2」其結合的動詞也是如此。

本論文分析「V上」句中「上」的時間性來證明時間性越強的動詞可以與「上」結合、時間性越弱的動詞較難與「上」結合，希望可以降低韓國學生在使用「V上」句時所發生的錯誤使用率。

關鍵字：「V上」句、補語「上」、體(aspect)、持續體「著」、起始體「起來」、完成體「了」

學 號：2010-22703